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4년 2월
박사학위 논문

한국어교육에서의 고전문학 활용과 교육

-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강 충 화

한국어교육에서의 고전문학 활용과 교육

-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

The study on the utilization and education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 Focusing on the foreign students who pursue
korean academic purposes -

2014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강 충 화

한국어교육에서의 고전문학
활용과 교육

-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

지도교수 이 상 원

이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강 충 화

강충화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김수중 (인)

위 원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김정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강희숙 (인)

위 원 조선대학교 조교수 임준철 (인)

위 원 조선대학교 부교수 이상원 (인)

2013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사 검토 및 서술 방향	5
II. 한국어교육의 범주와 고전문학교육	10
1. 한국어교육의 개념과 범주	10
2. 문화교육과 고전문학교육	16
III.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과 태도	26
1. 조사 설계	26
1) 조사의 목적	26
2) 조사 대상의 선정	26
3) 조사 기간 및 조사 방법	27
2. 설문지 구성	28
1) 조사 도구	28
2) 고전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28
3. 분석 방법과 특성 분석	29
1) 자료의 분석 방법	29
2) 조사 대상자의 특성	29
4. 인구통계적 요인과 고전문학교육의 상관성	33
1)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	33
2)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연령별 인식 차이	34
3)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이주 유형별 인식 차이	35

4)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거주 지역별 인식 차이	36
5)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학습 기간별 인식 차이	38
6)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한국어 능력 수준별 인식 차이	38
5. 인구통계적 요인과 한국어교육 만족도의 상관성	40

IV.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고전문학 활용 양상

1.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에 대한 내용 조사	43
1)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43
2) 서강대학교 『서강한국어』	45
3) 서울대학교 『한국어』	47
4) 연세대학교 『연세한국어』	49
5)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한국어』	51
2. 한국어 교재의 문학 작품에 대한 계량적 분석	55
1) 교재별 고전/현대 비율 분석	55
2) 교재별 장르 분포 현황 및 분석	61
3. 한국어 교재의 기능과 개선 방향	63
1) 한국어 교재의 기능	63
2) 현행 한국어 교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65

V. 고전문학 활용과 교육 방안

1. 고전문학교육의 목적 및 목표	68
2. 고전문학 작품 선정 기준	74
3. 단계별 고전문학 교수요목	80
1) 초급 단계의 고전문학 교수요목	82
2) 중급 단계의 고전문학 교수요목	86
3) 고급 단계의 고전문학 교수요목	99

VI. 결론	112
■ 참고 문헌	117
■ 부록	131

<표 목차>

<표 II-1> Seeyle(1984)와 Hammerly(1982)의 문화교육의 목표	17
<표 III-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0
<표 III-2>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경험	31
<표 III-3>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	32
<표 III-4>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성별 인식	34
<표 III-5>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연령별 인식	35
<표 III-6>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이주 유형별 인식	36
<표 III-7>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거주 지역별 인식	37
<표 III-8>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학습 기간별 인식	38
<표 III-9> 고전문학에 대한 한국어 능력 수준별 인식	39
<표 III-10> 인구통계적 요인과 한국어교육 만족도의 상관성	41
<표 IV-1>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문학 작품 수록 현황	44
<표 IV-2> 서강대학교 『서강한국어』 문학 작품 수록 현황	46
<표 IV-3> 서울대학교 『한국어』 문학 작품 수록 현황	48
<표 IV-4> 연세대학교 『연세한국어』 문학 작품 수록 현황	50
<표 IV-5>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한국어』 문학 작품 수록 현황	52
<표 IV-6> 각 교재별 문학 작품 수록 양상 비교	56
<표 IV-7> 한국어 교재별 장르 분포 현황	61
<표 V-1> 초급 단계 고전문학 교수요목	84
<표 V-2> 중급 단계 고전문학 교수요목	88
<표 V-3> 고급 단계 고전문학 교수요목	102

<그림 목차>

<그림 II-1> 한국어교육학의 내용 범주	14
<그림 IV-1> 한국어 교재 고전/현대 작품 비중도	56
<그림 IV-2> 한국어 교재 급수별 문학 작품 비중도	58
<그림 IV-3> 한국어 교재 급수별 현대문학 작품 비중도	59
<그림 IV-4> 한국어 교재 급수별 고전문학 작품 비중도	60
<그림 IV-5>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의 장르별 분포도	62
<그림 V-1> 교육과정 개발 절차	69

ABSTRACT

The study on the utilization and education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 Focusing on the foreign students who pursue Korean academic purposes -

Jiang Zhong-Hua

Advisor : Prof. Lee Sang-Won.

Major in Korean Literature and Linguistic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presenting a methodology of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for the students who pursue academic purposes.

Korean education has been grown up to a significant level in quantitative terms. However, there is a doubt if the Korean education has been performed on the basis of educational contents sufficient enough to cover the quantitative expansion. Particularly, there has been very few previous systematic studies in literature education including the classical literature. Therefore, this study mainly attempts to suggest a methodology of educating the classical literature as a part of Korean education.

Chapter I illustrates tha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study the methodology of educating classical literature for the students whose study purpose is academic career development. This chapter also includes the previous academic studies concerned, and points out the problems and directions.

Chapter II sets a relationship between Korean education and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and also summarizes the names, concepts, and categories of Korean education. As a next step, this chapter explains that the culture education remains as a part of the literature education by studying the contents and categories of literature education.

Chapter III deals with the analyses and contents of questionnaire performed for this study. The contents of detailed questionnaire focuses on the students' satisfaction and response to the existing Korean education. In these results of questionnaire, the students showed a satisfaction to the Korean education generally but expressed a need of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in the future.

Chapter IV describes the cases of using classical Korean literature and their problems. The five present textbooks for Korean education were selected and analyzed to figure out their problems and to develop the more desirable textbooks for teaching the students. In general, the existing textbooks for Korean education contain very few Korean classical literature works and show a great variation from one institute to another.

In Chapter V, some constructive solutions for the better Korean education ar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previous questionnaire and of the textbooks for the Korean education used by

the 5 Universities. This chapter also sets the goal and purpose of the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and presents the proper bases for selecting the Korean education textbooks gearing to these goal and purpose. Finally, a model case of teaching-learning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suggested by designing the multiple syllabuses classified into entry,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s.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논문은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고전문학교육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어교육은 그동안 발전을 거듭하여 상당한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¹⁾ 이에 따라 한국어 교육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이를 배우는 학생의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런 양적 성장만큼 교수-학습의 내용이 충실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물론 지금의 한국어교육을 초창기 한국어교육과 견주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수-학습의 내용이 충실하게 채워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수-학습의 내용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정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어교육의 내용적 측면과 관련하여 최근에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문화교육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어교육은 언어교육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이 통합된 한국어 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거나,²⁾ 언어교육과 분리된 상태에서 별도로 문화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논의들이 늘어나고 있다.³⁾ 또한 문화교육이 강조되면서 교수-학습의 방법과 관련해서도 문화

1)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국내외 한국어 교재 백서』(2009)에 의하면 당시까지 출간된 한국어 교재는 33개국에서 개발한 3,399권(한국 내에서 개발된 교재는 831권이고, 국외의 경우에는 일본 1,530권, 중국 421권, 미국 223권)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한국어교육 기관은 약 435개 기관에 이른다고 한다.

2) 성기철(2001), 이미혜(2004), 오지혜(2007), 박갑수(2013), 조정순(2013) 등이 대표적이다.

간(文化間)⁴⁾ 의사소통 접근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화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문학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학교육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국어교육의 차원에서만 주로 다루어 왔고, 한국어교육의 차원에서는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차원에서 가능할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문화교육이 강조되고 교수-학습의 방법으로 문화간 의사소통 접근법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문학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고찰한 윤여탁(2007)은 이와 관련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 문학을 통한 한국의 사회문화 교육, 한국문학 그 자체에 대한 교육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문학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현대문학뿐만 아니라 고전문학도 함께 교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전문학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기에 때문에 확실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단편적인 논의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문학교육, 특히 고전문학교육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를 위해서는 한국어교육의 대상자인 학습자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등 학문 목적 학습자를 그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다양한 목적의 국내 거주 외국인들 중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학생의 경우 유학을

3) 김수진(2010), 배재원(2011), 최정순(2013) 등이 대표적이다.

4) 1970년대 이 후 미국을 중심으로 문화학, 교육학, 심리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에서 널리 사용된 용어인 'intercultural'을 번역한 용어이다. 'intercultural'의 번역어로는 '문화간'을 비롯하여 '이문화간', '간문화적', '이문화적', '상호문화적', '상호문화간' 등의 용어들이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여기서는 최근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문화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목적으로 거주하다 보니 본국에서 교재를 통해 배운 정규 한국어의 시간은 적은 반면,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전문성이 포함된 한국어를 접하는 시간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어 습득 시간은 증가하지만 전공 언어와 한국어 교재에서 배운 내용을 효율적으로 연결 짓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의 경우 단기간에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기관별로 다양한 영역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영역에서의 학습자의 교육에 대한 만족감 증대, 교육 참여 장애 문제 및 영역 간의 조화 문제는 한국어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어 습득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우선 경제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계속해 왔으며, 2013년 11월 25일 한국은행 보도에 의하면 2013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4044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⁵⁾ 이는 2012년도 1인당 국민소득(2만 2700 달러)보다 5.9% 증가한 수치다. 한국이 OECD 회원국으로 성장하면서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 및 인지도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한국어 수요 증가의 두 번째 요인으로는 아시아 대중문화 시장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형성된 신한류의 영향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에는 한국의 드라마, 1990년 후반에는 음악, 2000년대 중반에는 드라마와 영화, 2000년대 후반에는 K-POP과 게임이 각각 한류를 주도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5) 2013년 국민총소득(GNI)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소득 2만4044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한 것은 2013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8%, 원 달러 환율을 1095원, 인구를 5022만 명으로 추산해 나온 것이다.

1990년대에는 중국과 동남아, 2000년대 초에는 동남아, 2000년대 중반에는 일본, 2000년대 후반에는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 일본 등으로 교차적 인기를 구가(謳歌)하고 있다(변미영, 2011:9).

마지막으로는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의 국내 유입에 기인한다. 출입국 외국 인정책 통계연보⁶⁾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998년 308,339명이었는데 2002년에는 두 배가 되어 629,006명에 이르고 2007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 1,066,273명이 되었으며, 2012년 말 기준 1,445,103명에 달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588,944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며, 결혼이민자는 220,687명(국적 미취득자 144,2214명, 국적 취득자 76,473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최근에 조금 주춤한 상태이긴 하지만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볼 수 있다.⁷⁾

이와 같은 여건 변화로 한국어에 관한 인식의 변화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교재의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교재의 중요성은 한국어의 습득에 있어 그 어떤 영역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학생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학문적 성과에 도달하기 위해 숙련된 한국어의 습득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어 습득 요구에 맞추어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재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김재욱, 2010:61).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가 증대되면서 다양한 교재의 등장과 교수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들도 풍성해지고 있다. 또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가 많아지면서 학습자들의 학습 목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 학습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처음 한국어를 배우게 된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목표로 삼

6) e-나라지표(<http://index.go.kr>)

7) 2013년 12월 1일 기준, 교육부에서 집계한 유학생 수 추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유학생 수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86,878	85,923

게 되었다(장원기, 2010:4~5).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전문학교육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및 서술 방향

본고는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고전문학교육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사 검토는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연구인데, 이는 본고가 특수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둘째 문화교육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고전문학교육이 크게 보아 문화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본고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고전문학교육에 관련된 연구들이다.

첫째,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한국어교육이 상당히 보편화된 2000년 정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안경화·김정화·최은규(2000)는 학습자 집단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데도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은 배경이 다른 모든 학습자에 대하여 일률적인 교수이론 내지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이 적용되었다고 비판하고 학습자의 요구와 학습 목표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후 이해영(2001)과 김영만(2001)에 의해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재 분석과 한국어교육의 방향이 제시되었다.

한편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교육은 단계별, 국적별, 목적별로 다양하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중 학습 단계별이나 국적별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는 비교적 일찍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반면에 목적별 한국어교육에 대한 논의는 최근 들어 크게 강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어교육은 그 목적에 따라 일반 목적과 특수 목적으로 구분

하는데, 일반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대상자 중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⁸⁾ 그리고 특수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대상자 중에서는 유학생이나 교환학생 등 학문 목적 학습자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⁹⁾ 그 외 특수 목적 학습자 중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영희, 2009)도 있다.

둘째,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박영순(1989)은 이미 한국어교육 초창기에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문화교육을 통하여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언어도 배울 수 있으며 학습자의 언어교육에 대한 강한 학습의욕과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 후 민현식(1996), 김정숙(1997), 조항록(1998, 2000), 성기철(2001), 라혜민(2007)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화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이들 논의는 “문화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에 기여한다”(성기철, 2001)는 것을 문화교육의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문화교육을 의사소통을 위한 기능적인 것으로 국한하였다.

반면, 이와는 달리 문화교육을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에 국한하지 않고 좀 더 폭넓게 파악하려는 관점도 대두되었는데, 이는 주로 문학교육의 방면에서 제기되었다. 윤여탁(2003)은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방향을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 ‘문학을 통한 한국의 사회문화 교육’, ‘한국문학 그 자체에 대한 교수-학습’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그 각각에 대해 자세하게 검토하였다. 그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이나 문학교육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정우(2009:27~28)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학 교재를 개발함에 있어 기준의 비중을 학습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조수진(2010:196~214)은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을 전

8) 이명오(2006), 김수현(2008), 김윤희(2010), 김윤주(2011), 신영지(2013) 등이 대표적이다.

9) 전수정(2004), 김유미·박동호(2009), 고경숙·이소현(2010), 한송화(2010), 강희숙(2011), 신영지(2011), 황설운(2013) 등이 대표적이다.

제로 학습자의 요구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인지도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문화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방향에 대해 논했으며, 양영희(2013:144~147)는 학습자들에게 효율적으로 흡수되기 위한 문학 장르 및 텍스트 선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문화간 상호관계성과 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송용실(2012:118~120)은 한국어 문화교육의 실태를 분석한 뒤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어 문화교육의 원리로서 간문화교육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정서적 듣기’ 기능 중심으로 문화교육이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서 서로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고 이해하는 상호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배재원(2013:104~105)은 한국문화에 대한 총체적 · 상호문화적 접근 방법을 적용한 한국문화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정순(2013:23~24), 조재형 외(2013:109~128)와 오지혜(2013:76~94)는 문화교육의 영역을 밝히고 문화간 의사소통 방법에 대하여 논하였다. 김현진(2013:34~57)은 한국어교육에서 1차 목표를 상호 문화 이해의 시각 폭을 넓히는 독립적인 문화교육에 두고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는 문화교육 방안의 일환으로 협동 학습 방법인 ‘탄뎀 학습(Tandem learning)’¹⁰⁾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문화교육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응,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 신장, 문학을 활용한 사회문화 교육, 교수-학습법 등에 집중해 왔으며, 이러한 단계를 지나 단계별 교재 내용 연구나 교재 내용 선정 및 문학 장르 및 텍스트 선정에 관련된 연구가 주로 진행되다가 가장 최근에는 문화교육의 역할론적 접근 위주로 이루어지고

10) 탄뎀 학습은 두 나라 학습자가 동시에 수업에 참여하여 자신의 문화를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상대방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고 이해하는 학습 방법이다. 이런 학습 방법은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있다. 정서적 듣기라든가 상대방의 상호 이해 차원에서의 접근법 그리고 협동 학습방법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향후 문화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은 소통이나 교재 내용적 측면 그리고 정서적 측면과 같은 학습자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교육은 의사소통보다는 사회문화 교육의 측면에서 강조된 경향이 있다. 앞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방향을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 ‘한국의 사회문화 교육’, ‘한국문학 그 자체에 대한 교수-학습’의 세 가지로 나눈 윤여탁(2003)의 논의를 살펴 본 바 있는데, 이 세 가지 중 고전문학교육은 주로 두 번째 한국의 사회문화 교육이라는 방향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언어 생활사에서 삶과 세계를 인식하는 틀과 지향하는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고전문학이며, 이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잘 알 수 있고 그것의 표현 방식도 알 수 있게 되어 한국어를 고급한 수준에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홍혜준(2004:534)의 관점에서 이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홍혜준은 이런 관점에서 고전문학교육의 가치를 논한 뒤 시조와 전래동화를 예로 들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백인자(2004) 역시 목표 언어를 학습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가 속한 사회의 문화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 전제하고, 그 사회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고전문학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을 주장하였다.

한편,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한 위의 논의들과 달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것들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설화나 전래동화를 사례로 든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¹¹⁾ 그 외 소설¹²⁾, 시조¹³⁾ 등의 장르에 대해서도 의미 있게 다루고 있다.

11) 이선희(1999), 이화선(2005), 구선희(2008), 윤미정(2008), 문보라(2009), 양지선(2009), 조문경(2011), 조윤희(2011), 김은정(2012), 전소현(2012), 홍순희·김지영(2012), 김성미(2013) 등이 있다.

이상의 연구사 검토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고전문학교육의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장별로 서술할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한국어교육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정리를 통해 문화교육의 위상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교육의 최근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문화교육의 일부로서 고전문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과 더불어 실제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는 한국어교육 대상자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III장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II장과 III장의 정리 결과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 그중에서도 고전문학교육이 특히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한 뒤 이를 토대로 IV장에서는 현행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고전문학교육의 양상을 조사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V장에서는 IV장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고전문학교육의 방안을 학습자 수준별로 나누어 고찰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VI장은 결론으로서 앞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미처 해결하지 못한 과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12) 양민정(2003), 강혜민(2006), 진씨벽봉(2012), 이정원(2013) 등이 대표적이다.
13) 황우철(2009), 이송희(2013), 엄태숙(2013) 등이 대표적이다.

Ⅱ. 한국어교육의 범주와 고전문학교육

1. 한국어교육의 개념과 범주

이 장에서는 한국어교육과 고전문학교육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한국어교육의 명칭, 개념, 범주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명칭은 상당히 다양하다. 한국어교육, 어문학(語文學)교육, 한국어언교육, 한국어문교육, 한국어문학교육, 한국어 문화교육, 국어교육, 국문학교육, 한국학교육, 민족언어문학교육, 조선어교육, 조선어문교육, 조선-한국어문학교육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의 명칭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양한 주체들의 서로 다른 목표가 있기 때문이고 국어국문학, 한국학, 교육학 등의 상위 개념과의 관계가 혼재되어 쓰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김승환, 2010:37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명칭들 중 한국어교육이란 명칭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어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문화교육 그 가운데 특히 고전문학교육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고자 한다. 본고가 추구하는 이런 방향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어 문화교육이라는 명칭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이미 한국어교육이라는 명칭을 주로 써 와서 매우 익숙해진 점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육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명칭과 관계없이 그 내포적 의미는 ‘한국어 문화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한국어교육의 개념에 대해서도 논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파악해 왔다. 여기서는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고 본고의 방향에 부합하는 한국어교

육의 개념을 설정하고자 한다.

박영순(1989:45)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을 피교육자의 성격이나 그들의 목표에 따라 이중언어교육으로서의 한국어교육,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순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논하였다.¹⁴⁾ 이 중 본고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의 경우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박영순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는 문화교육 위주로 교육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빨리 한국사회에 적응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므로 언어교육보다는 한국문화교육을 통하여 한국문화에 빨리 익숙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 것이다(박영순, 1989:45~46).

한국어교육은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교수-학습하는 내용과 과정을 말하고, 언어교육과 문학교육이라는 두 의미가 중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김승환, 2010:395). 이 경우 그 표현상, 한국어교육이라는 명칭은 언어교육에 치중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동등하게 포괄(包括)하는 개념인 한국어문학교육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등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의 완전한 모국어를 습득한 후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와서 상당 기간을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말하는 한국어교육은 박영순의 분류 중에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박영순이 피교육자의 성격이나 그들의 목표를 기준으로 한국어교육을 규정한 데 비해, 김승환은 교수-학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한국어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승환이 규정한 한국어와 한국문학이라는 내용 범주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자

14) 이중언어란 생후 처음부터 또는 아동기로부터 지속적으로 두 개의 언어 환경에 놓인 사람이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일 또는 그러한 두 개의 언어를 말한다. 제2언어란 하나의 완전한 모국어를 습득한 후에 또 다른 언어 환경에 상당기간 놓임으로써 두 번째로 배우는 언어를 말하며, 외국어란 하나의 언어 환경에서 하나의 모국어를 습득한 후에 동일한 환경에서 배우게 되는 또 하나의 언어를 말한다.

세히 살펴본 후 한국어교육의 내용 범주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교육학 분야에서는 기타 외국어교육학과 달리 독자적인 내용학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와 시대에 맞는 한국어교육의 내용 영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서는 논자별로 한국어교육의 내용 영역을 어떻게 범주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본고의 방향에 부합하는 내용 범주를 설정하고자 한다.

박영순(2001:12)에서는 한국어교육학을 언어 내적 분야와 언어 외적 분야라는 체계로 구별하여 하위분류를 하였다. 이들 각각의 기준은 모두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¹⁵⁾

(1)

- 언어기능교육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 문법교육 :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한국어사
- 문화교육 : 한국인의 가치관과 전통, 한국의 예술, 한국의 문화재, 한국의 생활 풍습, 한국의 문학

강승혜(2003:14~15)에서는 간행연도 기준 2003년 초까지 발표된 720여 편의 모든 학위논문, 정기간행물에 실린 논문들에서 다룬 한국어교육 범주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총 10개 주제-한국어교육 일반, 한국어교육 내용, 한국어 교수-학습, 한국어 교재, 학습자 요인, 오류 분석, 한국어 능력 평가, 웹기반/컴퓨터, 학습자 사전 개발, 교사 교육으로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중 한국어교육 내용 영역 분류만 제시한다. 한국어교육에서 다루어지는 교육내용별로는 문법, 어휘, 화용, 발음 및 억양, 문학, 한자, 문화 등 실제 한국어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15) 박영순(2001)에서 제시된 분류표 중 언어 내적 분류만 기술한 것이다.

(2)

- 문법 : 한국어교육문법, 문법항목의 교수법, 정서법
- 어휘 : 어휘, 관용표현 등의 교육
- 화용 : 한국어의 화용적 측면의 주제
- 발음·억양 : 한국어 발음의 음성학적 접근, 대상별 발음교육
- 문학 : 시, 소설, 설화 등의 문학교육
- 한자 : 한자교육, 기초 한자어 교육
- 문화 : 문화교육, 문화교육 현황, 단계별 문화교육방안

민현식(2005:13~27)에서는 한국어교과학의 내용 영역을 기능교육 영역, 문법교육 영역, 문화교육 영역 등 세 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내용 영역 분류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3)

- 기능교육 영역 : 말하기·듣기교육론, 읽기교육론, 쓰기교육론
- 문법교육 영역 : 발음교육론, 문자교육론, 어휘교육론, 문장교육론, 의미교육론, 담화교육론, 규범교육론
- 문화교육 영역 : 한국어문학교육론, 한국어 문화교육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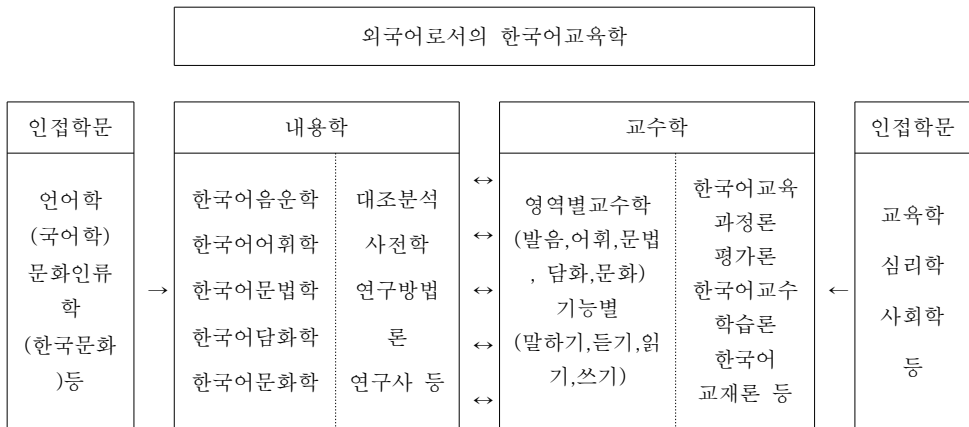
김영미(2007:51)는 한국어교육의 내용 영역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한국어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언어의 세 가지 측면, 즉 기능적, 구조적, 사회문화적 측면의 지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야 한다고 보고 한국어교육의 내용 영역을 담화기능 영역, 발음과 표기 영역, 어휘 영역, 문법과 표현 영역, 문화 영역의 다섯 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기본 영역과 하위 범주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4)

- 담화기능 영역 : 사실 정보 주고받기, 의도 주고받기, 사교적 담화 기능, 종합적/절차적 담화 사용

- 발음과 표기 영역 : 한글의 자모, 발음 규칙과 한글 표기법
- 어휘 영역 : 생활 어휘, 문화소통 어휘
- 문법과 표현 영역 : 용언의 활용, 조사와 표현, 어미와 표현, 인용절 구문
- 문화 영역 : 일반문화 영역(한국의 전통문화, 한국의 당대문화), 언어문화 영역(일상생활 및 행동양식, 언어적 내용), 문학 영역(일상적 실용문, 예술적 문학 작품)

강현화(2008)에서는 한국어교육학의 내용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국어교육학의 세부 영역을 아래와 같이 내용학과 교수학으로 구분하고, 한국어교육학과 관련된 인접학문으로 언어학, 문화인류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등을 설정하였다.



<그림 II-1> 한국어교육학의 내용 범주(강현화, 2008:6)

이상에서 논의된 한국어교육의 내용 범주를 보면 연구자들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교육을 바라보는 논자들의 관점이 다른 데 기인한다. 따라서 이를 무조건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본고에서는 본고의 방향과 어느 정도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 박영순(2001), 민현식(2005), 김영미(2007)의 논의를 종합하여 한국어교육의 내용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5)

- 언어기능 영역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 문법 영역 :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한국어사
- 문화 영역 : 일반문화 영역(정신문화, 생활문화, 예술문화), 문학 영역(한국 고전 문학, 한국 현대문학)

세 가지 영역 중 언어기능 영역과 문법 영역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는 편이다. 이에 비해 문화 영역의 경우는 논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문화 영역에 대해 설명을 조금만 보태고자 한다. 우선 문화 영역을 크게 일반문화 영역과 문학 영역의 둘로 크게 나누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반문화 영역의 하위 영역과 문학 영역을 대등한 자격으로 다루는 논의들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영역을 별도로 독립시킨 것은 문학을 언어문화로 보기도 하고 예술문화로 보기도 하는 등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져 있지 못한 데다¹⁶⁾ 본고의 논지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도 작용한 결과다. 다음으로 일반문화 영역의 하위 영역도 논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한데 여기서는 최대한 공통분모를 추출하여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정신문화는 논자에 따라 관념문화라 부르기도 하는 것으로 한국인의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 사상, 정서 등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생활문화는 의식주 생활, 여가생활, 세시풍속 등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예술문화는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드라마, 무용 등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논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¹⁷⁾

16) 박영순(2006)과 임경순(2009)은 언어문화로 보고 있는 데 반해 황철운(2013)은 예술문화로 보고 있다.

17) 박영순(2006)은 예술문화를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로 세분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임경순(2009)은 유물과 유적을 이에 포함시키고 성취문화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2. 문화교육과 고전문학교육

앞서 한국어교육의 영역으로 세 가지가 있으며 그중 하나가 문화 영역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문화 영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다. 그리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너도 나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일까? 그것은 언어와 문화¹⁸⁾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발달과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 중심의 제2언어교육론의 전개에 따라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이 강조된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여기에 문화가 21세기의 국제 경쟁의 화두가 된 것도 일조를 하고 있다(김중철, 2010:339). 또한 문화교육이 의사소통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문화를 이해하는 폭도 넓혀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김지호(2011)는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하나는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는 인류문화적인 관점에서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문화교육은 작게는 학습자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교육의 수단으로 필요하고, 넓게는 외국문화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깊은 통찰력을 갖게 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하고자 하는 데 그 필요성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18) 성기철(2001:111~135)에서는 문화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문화란 역사적 개념이다. 문화란 역사적 과정 속에서 생성되어 후대에 유전되면서 변천하기도 하고 소멸의 길을 갈 수도 있다. 둘째, 문화는 사회적 개념이다. 문화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사회가 만들어 공유하면서, 다음 사회에 전수하는 것이다. 셋째, 문화는 교수·학습을 통하여 전승되는 것이다. 문화란 것은 선천적으로 습득된 것이 아니며, 일종의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앞선 세대로부터 전수를 받는 것이다. 넷째, 문화란 것을 적응성을 가지는 것이다. 주변 환경에 따라 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변신을 한다. 고유문화는 현대 문명에, 도시 사람들은 도시 환경에, 또 한 문화는 이질 문화에 적응해 나가기도 한다. 다섯째, 문화는 침투성을 가진다. 문화는 물질, 정신, 정서 활동의 다양한 대상을 문화로 산출하면서, 이들 하나하나에 침투한다. 여섯째, 충족적인 것이다. 문화란 인간의 다양한 요구에 응해서 만들어지고, 향유되는 것이다. 문화의 특성 중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문화가 제2언어 한국어 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일 것이고 문화의 적응성, 즉 한국문화에 대한 동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습자들의 이질 문화에 대한 적응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렇듯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한국문화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더 효과적이고 가치가 있는 문화교육이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이는 문화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선 문화교육의 목표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문화교육의 목표와 관련해서는 Seelye(1984)와 Hammerly(1982)의 기준이 아직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 Seelye(1984)와 Hammerly(1982)의 문화교육의 목표

Seelye(1984)	Hammerly(1982)
1. 문화적으로 결정된 행동의 인지 2. 언어와 사회적 변인 (나이, 성, 계층 등)간의 상관성 3. 일반적인 상황(평소, 위기 등) 시의 관습적인 행동 4. 단어와 구의 문화적 함의 5. 목표 문화에 관한 평가 및 판단 기술 6. 목표 문화 연구 7. 목표 문화 및 사람들에 대한 태도	1. 단어와 구의 문화적 함의에 대한 지식 2. 일반적인 상황 시의 행동 방식에 대한 지식 3. 제2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개발 4. 교차 문화적 차이의 이해 5. 문화 내적인 제도 및 차이의 이해 6. 프로젝트와 같은 연구 7. 제2문화에 대한 통합된 관점의 개발 8. 제2문화에 대한 평가를 진술할 수 있는 능력 9. 제2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공감의 개발 10. 제2문화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

위의 표를 보면 Seelye(1984)에서는 문화교육의 목표로 학습자가 익혀야 하는 기술을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Hammerly(1982)에서는 제2언어 학습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순서대로 열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학습자의 문화교육의 수준이 점차적으로 높아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도 문화교육은 한국어 학습 단계에 맞추어 설정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하나를 들면 다음과 같다(한재영 외, 2005:515~516).

(6) 문화교육의 목표

* 초급

- 한국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 일상생활에 관한 말과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 표정이나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차이를 이해한다.
- 문화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 한국문화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한국문화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 중급

- 한국어로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활용한다.
- 한국인들의 행동 양식과 의사소통 요령을 터득하여 일반적인 화제에 대하여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한다.
- 한국어의 언어 표현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이해한다.
- 한국어로 표현된 말이나 글을 통해 한국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해한다.
- 한국의 사회제도와 풍습을 이해한다.

* 고급

- 한국어로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한다.
- 일반적 주제 및 추상적 내용의 말이나 글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이해한다.
- 문화 형식의 심층적 의미를 이해한다.
-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적 특성을 바르게 소개한다.
- 상호문화적인 이해를 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갖는다.

언어문화¹⁹⁾적 관점에서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서 출발하여

19) 언어의 사용과 관계가 있는 문화를 보통 한국어교육계에서는 ‘언어문화’라 부른다. ‘언어문화’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그 하나는 문화로서의 언어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에 의해 형성된 문화로서 문학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언어는 1차적으로 사회·문화를 반영하고 2차적으로 언어가 사회·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갑수, 2013).

궁극적으로는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문화 자체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보듯 언어문화적 관점에서는 언어와 문화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이해한다. 즉 언어와 문화는 상생상보의 관계, 서로를 포함하는 통합과 융합의 일체 관계에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단어 하나하나에도 문화가 흐르고 있고, 문화의 단편 단편에도 언어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며, 언어 속에는 문화가, 문화 속에는 언어가 숨 쉬고 있다고 한다. 이 관점을 취하는 논자들은 언어와 문화는 하나의 양면과도 같으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문화는 언어의 혼이요, 언어는 문화의 육신이라고 주장한다(성기철, 2001).

이런 관점에서는 한국어를 학습할 때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학습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언어 능력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이 다시 언어 능력을 신장시킨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문화간(文化間) 의사소통 접근법이다.

제2의 문화 즉 이문화간(異文化間) 커뮤니케이션이란 메시지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일어나는 것(Porter & Samovar, 1976:4) 또는 다른 문화 집단에 속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Prosser, 1978:xi)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문화간 의사소통이란 각각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Damen(1987)은 외국어교육에서 이문화 학습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이문화 학습과정을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분류하였다.

(7)

- 1단계 : 문화적 차이점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 2단계 : 표면상의 '이문화' 특징을 의식한다.
- 3단계 : 문화적 차이점을 한층 강하게 인식한다.
- 4단계 : 중요한 문화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한다.

- 5단계 : 상대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한다.

위의 이문화 학습과정의 다섯 단계는 이문화의 문화· 사회적 거리가 최대인 제1 단계에서 최소인 제5 단계까지의 감정면에서의 학습 단계를 설명한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5단계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지식으로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체험함으로써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학습할 때 필연적으로 제2의 문화(이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언어와 문화의 불가분한 관계에 의해 특정 언어를 학습할 때 자국 문화와 목표 문화 사이에 있는 학습자는 때때로 문화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더욱 힘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즉 언어교육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라는 맥락하에 문화와 상호적인 관계로 존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문화간 의사소통이다(김양희, 2007:11)

그러면 동일문화 내의 의사소통과 문화간 의사소통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은 당사자들 간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문화간 의사소통은 최소한 두 나라 이상 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은 물론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로까지 확대된다(황정민, 2006:17). 특히 외국어를 사용하는 실제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은 맥락 없이 이루어질 수 없고, 문화는 맥락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의사소통은 문화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즉, 학습자들은 외국어의 학습자임과 동시에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는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그 언어의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 이것은 언어의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지만,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갖는 사람들끼리의 의사소통이므로 좀 더 복잡한 체계가 요구된다(김양희, 2007:12).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는 이질적인 문화를 경험하게 되며 그 안에서 때로는 차이점으로 인해 독립적인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사점으로

로 인해 그 사회의 구성원처럼 융화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최정순, 2004:73). 따라서 문화교육은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최근에는 문화교육이 언어문화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류학적, 문화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논의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²⁰⁾ 박노자(2000)는 한국문화교육을 인류 보편문화교육에서 출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타당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선이(2007)는 문화 상호 이해 차원에서 한국 문화교육이 한국문화와 학습자 문화의 개별성과 보편성을 융화해내는 창조적 공간을 생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수진(2010)은 지금까지 한국문화교육은 한국어교육의 부분 영역 또는 종속 영역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교육 논의와 연구 또한 언어교육적 관점을 전제로 진행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하고 이제 한국문화교육은 한국어교육과 독립적 관계를 형성하며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때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문화교육이 다양한 사회적 현상, 구조에 대하여 언어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¹⁾

이 관점에 서는 경우 문화교육은 목표언어 문화로의 동화를 지향하지 않는다. 동화는 학습자 자국의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문화, 즉 목표 문화를 자신

20) 언어문화적 관점에서는 언어문화를 통합적으로 교육하되 언어교육을 1차적 대상으로 하고 문화교육은 2차적인 것으로 하며(박갑수, 2013), 문화의 범위 혹은 범주와 관련하여 언어자료의 배경지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데(김대행, 2012), 인류학적·문화학적 관점은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타난 측면이 강하다.

21) 김수진은 한국문화교육뿐만 아니라 한국문화교육 연구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한국문화교육 연구는 한국문화, 한국문화교육에 대한 개념과 목표 범주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채 한국어교육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또한 교육 내용이 학습자들이 겪게 되는 문화 갈등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알아야 할 한국문화’에 집중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 그 결과 한국문화교육 연구는 이문화로서의 한국문화 내용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학습자들이 처한 소통의 현실에 대한 성찰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와 있다. 이제 한국문화교육 연구는 언어학적 관점, 언어교육적 관점에서 한국학적 관점, 문화학적 관점, 문화교육적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국문화교육은 학문적 교육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한국어교육과 독립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학습자가 한국문화와 학습자 모문화 사이에 선 문화 주체임을 고려하면서 내용 논의와 방법 논의를 심화하고 풍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김수진, 2010:13~14).

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문화간 의사소통 접근법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여러 언어권의 학습자가 모인 교실에서는 문화간 충돌 및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서로간의 문화 동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상호문화를 학습하며 문화간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한다. 최정순(2013)은 한국어교육에서 목표어, 목표문화교육의 등가적 접근을 전제로 목표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그치지 않고,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화교육이 아닌, 한국어를 도구이자 수단으로 삼아 서로의 문화에 대해 탐색하고, 다음과 같음을 알아나가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로의 발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그 대안으로서 ‘문화간 의사소통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언어문화적 관점이든 인류학적 · 문화학적 관점이든 문화간 의사소통 접근법을 활용한 문화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화간 의사소통 접근법을 활용한 문화교육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문학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문화교육의 적절한 텍스트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학 작품이다. 문학은 한 사회의 문화자본(文化資本)이라 할 수 있고, 개인들이 이루어내는 문화력(文化力)의 총화(總和)는 한 사회의 문학 역량으로 집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문학은 그 사회의 문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 문학 작품 중에서도 문화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텍스트로 고전문학 작품을 들 수 있다.²²⁾ 고전문학의 모티브들은 전통적인 문화이며, 현재 한국인들의 보편적인 문화까지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전문학 작품에는 민족의 정신요소, 정서가 잘 담겨 있으며, 이것이 현재까지 전해지며 한국인의 보편

22) 한국문학 작품 속에 용해되어 있는 문화적 요소를 추출하여 교수함으로써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적 가치관이나 지향 의식, 언어 및 문화 관습 등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한국적 삶에도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화교육은 ‘한국문화의 특징을 드러내는 작품’을 가르침으로써 ‘문학 속에 나타난 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 부합된 가장 효과적 텍스트가 고전문학 작품이라 하겠다 (양민정, 2006:101~125).

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고전문학에 대한 감수성이나 풍부한 지식을 한껏 발휘하여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것을 국어능력으로 본다면, 언어기능 영역을 강조하면 할수록 고전문학에 대한 학습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외국의 언어교육이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담고 있는 문학 작품을 주된 내용으로 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달리 생각하면 교육적 처방은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전문학은 그러한 잠재적 교육의 가능성 때문에 표현과 이해의 자료로서 더욱 큰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염은열, 2007).

고전문학은 한국인의 언어, 문화, 정신, 가치관, 풍속 등의 뿌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문화교육, 한국어의 이해와 표현 학습을 통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심미적 언어교육에 필수적이다. 고전문학교육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것이 단순히 강독수업이 아니라 외국인 학습자들의 문화 이해를 폭넓고 깊이 있게 도울 수 있는 강독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강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사한 현대문학 작품과의 비교 학습을 통해서 그 지속과 변모의 의미망을 인지시킬 수도 있고, 학습자 모국의 문학 작품과 비교 학습을 하거나 역할극을 주어 상호간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스스로의 발견을 유도해 볼 수도 있다(양민정, 2003:279~303).

고전문학 장르 중 가사(歌辭)는 한국 전통문화의 전승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사라져가는 장르가 아니라 되살아나는 장르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내적 정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전통적인 자질을 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최혜진, 2010). 그리고 판소리에는 전통적인 사상, 즉 효(孝), 열(熱), 우애(友愛) 등의 사상이 잘 녹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들은 몇 마디로 정의하여 지식 전달식으로 교육하게 되면 그 의미를 학습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서들이다. 따라서 판소리계 소설의 이야기 속에서 이 특성들을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의식주 문화가 잘 나타나 있으며, 한국의 가족 관계가 잘 나타난다. 즉, <심청전>에는 부녀 관계가, <춘

향전>에서는 부부 관계와 장모-사위 관계가, <흥부전>에는 형제 관계가 잘 사실이다. 또한 관계를 단편적으로 드러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판소리계 소설은 한국어학습자들에게 한국의 사상 및 문화, 특히 가족 관계에서의 도리 및 사상을 학습하기에 적절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김미진, 2010).

고전문학에 나타난 현실 인식의 태도와 비판 정신은 한국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천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이 고전문학이 이주민들의 한국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고전문학의 교육적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교육은 큰 의미가 있다. 이주민 입장에서는 고전문학교육을 통하여,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떳떳하고 충실하게 대한민국 문화를 향유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런 전통적인 관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선이(2007)는 국가간 경계가 약화되고 있는 현대에서 문화교육 이전에 전제되어야 할 문화교류, 문화 상호 이해 차원에서의 탈근대적 문화 개념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문화교육이 국가나 민족의 퇴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김종순(2008/2009)은 한국학을 문화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전통문화를 문화적 전통으로, 민족문화를 교차문화로, 단일문화주의를 다문화주의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괄목할 발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를 한국어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설정하면서 그동안 한국어교육이 이루어낸 한국어 타자화와 객관화의 성과에서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김종철(2010)은 현대 한국인의 의식과 행위에는 전통적 가치관과 관념이 있으므로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논리는 물론 일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한국문화교육의 내용이 되는 한국문화의 실체를 전통문화에서 손쉽게 찾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형의 한국문화의 실체를 정확히 제시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인의 기질이나 습속을 넘어서 현대 한국인의 삶과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의식이나 가치관에 해당하는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란과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우선 현대 한국인의 의식과 행위에는 전통적 가치관과 관념이 있으므로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논리를 일단 승인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고전문학 속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전통문화적 요소를 추출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는 무조건적인 동화를 위한 차원이 아니라 이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좀 더 높은 보편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고전문학 속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문화적 요소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들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간 의사소통 교육을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Ⅲ.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과 태도

1. 조사 설계

1) 조사의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유학과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에 이주한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한국어교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을 활용한 교육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2) 조사 대상의 선정

지역적인 범위로 우선 광역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대표적인 도시로 대구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목표 표본 수는 150명이 되도록 설계하였으며, 대구·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모집단 목록으로 하여 다단계 층화집락 표집에 의하여 표집하였다. 표집 절차를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8)

- 제1 단계 : 표집 지역 선정 - 유학생과 어학연수자들의 통계를 중심으로 지역 분포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 분포도를 중심으로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표집 지역을 선정하였다.
- 제2 단계 : 교육 기관별 표집 대상자 배분 - 대학에서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기관으로 분류하였다.

- 제3 단계 : 각 단계별 표집 대상자 배분 - 분석 목적을 고려하여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라 표집 대상을 배분하였다.
- 제4 단계 : 응답자 선정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수강자를 응답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조사 기간 및 조사 방법

가. 예비 조사

연구 내용에 관한 탐색을 목적으로 2011년 12월 20일부터 2012년 1월 7일까지 18일간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구·충남 지역의 성인 남녀 3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본 연구의 주제를 고려하여 조사 대상을 유학생과 어학연수자로 제한하였고,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을 활용한 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높은 문항을 채택하였다.

나. 사전 검사

사전 검사는 질문지의 질을 높이고, 문항을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1월 16일부터 2012년 1월 20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 및 예비 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작업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대구광역시 거주 유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하였다.

사전 검사 결과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을 활용한 교육을 측정하는 8문항 중 판별력이 높은 6문항을 선정하였다.

다. 본조사

2012년 1월 25일부터 2012년 2월 13일까지 18일간 연구자가 직접 해당 지역의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조사 대상자를 면접하였다. 다만 응답자가 직접 기재하기를 원하는 대상에게는 질문지를 배부한 후 기다리거나 다시 방문하여 회

수하였다. 122명을 조사하였으며 그중 응답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설문지 2부를 제외하고 120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설문지 구성

1)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고전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였다(부록 참조). 설문지는 고전문학을 활용한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 교육 정도, 만족, 인구 통계적 요인을 측정하는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고전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고전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예비 조사 및 사전 검사를 근거로 6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여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을 활용한 교육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지각 정도를 분석하였다. 조사하는 통계적 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참여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조작하고 있다.

(9)

- 이분법 : ‘좋다’와 ‘좋지 않다’라는 형식으로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을 활용한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를 이분하는 방법
- 비참여자를 제외하고 참여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참여의 빈도나 수준을 조사하는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예비 조사 및 사전 검사를 근거로 13문항을 각 문항별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참여 빈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가능한 한 배제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척도, 즉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3. 분석 방법과 특성 분석

1) 자료의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빈도 분석과 집단별 평균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을 활용한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을 계산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2) 조사 대상자의 특성

가.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위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 III-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들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50.8%(61명)이고, 여성은 49.2%(59명)로 응답하였다. 응답자들 성별 분포가 절반씩 유지하고 있어 표본 추출에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은 ‘21~25세’가 63.3%(76명)으로 가장 많았고, ‘26~30

세’는 22.5%(27명)이며, ‘20세 이하’는 10.8%(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 유형으로는 대부분이 ‘유학’(81.7%, 98명)을 목적으로 이주하였으며,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이주한 응답자는 22명(18.3%)으로 조사되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대구 55.0%(66명), 충남 36.7%(44명), 경북과 전남이 각각 4.2%(5명)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집 단	빈 도(명)	백분율(%)
성 별	남	61	50.8
	여	59	49.2
연 령	20세 이하	13	10.8
	21-25세	76	63.3
	26-30세	27	22.5
	30세 이상	4	3.3
이주 유형	유학	98	81.7
	어학연수	22	18.3
거주 지역	대구	66	55.0
	경북	5	4.2
	충남	44	36.7
	전남	5	4.2

N=120(100%)

나. 한국어 학습 경험과 만족 정도

조사 대상자들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들의 한국어 학습 경험은 주로 2년을 기준으로 전후로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어로 이주하기 위해 한국어교육을 받은 기간은 1년 미만이 69.2%(83명)로 대부분이며, 1년 이상은 30.8%(37명)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개인적 능력에 대한 평가는 절반 이상인 57.5%(69명)

가 중급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밖에 고급 수준이 12.5%(15명), 초급 수준과 자신의 한국어 능력 수준을 모른다는 학습자가 각각 20.0%(24명)와 10.0%(12명)²³⁾로 나타났다.

한국어교육과 교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경험

변 수	집 단	빈 도	백분율(%)
한국어 학습 기간	6개월 미만	44	36.7
	6개월 이상~1년 미만	39	32.5
	1년 이상~2년 미만	19	15.8
	2년 이상	18	15.0
한국어 능력	고급	15	12.5
	중급	69	57.5
	초급	24	20.0
	모름	12	10.0
한국어교육과 교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 불만	1	0.8
	약간 불만	9	7.5
	보통	36	30.0
	약간 만족	50	41.7
	매우 만족	24	20.0

N=120(100%)

다.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

조사 대상자들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들이 고전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빈도 분석을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되느냐?’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에 대한 전통성을 확인할 수 있다’에 관해서도 역시 높은 비율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23) 조사 대상자들의 한국어 능력은 한국어 능력시험에 합격된 해당 능력을 말한다.

삶의 모습과 세계관을 확인'하는 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를 말하는 데 있어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한 교육이 '표현력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III-3>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

변 수	항 목	빈 도	백분율	평 균	순 위
전통성 확인	①	2	1.7	3.68	1
	②	13	10.8		
	③	35	29.2		
	④	41	34.2		
	⑤	29	24.2		
삶의 모습과 세계관 확인	①	3	2.5	3.63	2
	②	8	6.7		
	③	42	35.0		
	④	44	36.7		
	⑤	23	19.2		
표현력 다양성 추구	①	4	3.3	3.60	3
	②	7	5.8		
	③	41	34.2		
	④	49	40.8		
	⑤	19	15.8		
한국어 습득에 도움	①	3	2.5	3.59	4
	②	13	10.8		
	③	44	36.7		
	④	30	25.0		
	⑤	30	25.0		
일상 언어 이해에 도움	①	6	5.0	3.42	5
	②	10	8.3		
	③	54	45.0		
	④	28	23.3		
	⑤	22	18.3		
한국문학 이해에 도움	①	4	3.3	3.32	6
	②	18	15.0		
	③	49	40.8		
	④	34	28.3		
	⑤	15	12.5		

주)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느냐?’의 질문에 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문학을 이해하는 데 보다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을 활용한 교육이 가장 높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성 확인’이었고, ‘한국인의 삶의 모습과 세계관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 다음이었으며, 이어서 ‘표현력에서 언어적 다양성 추구’, ‘한국어 습득에 도움’, ‘일상 언어 이해에 도움’, ‘한국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 순으로 도움이 잘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을 활용한 교육이 지금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어 교재 개발에 있어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에 유학과 어학연수를 온 이들이 자국에 돌아가 선진 교육과 한국문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전통성 확인에 고전작품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인구통계적 요인과 고전문학교육의 상관성

1)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을 활용한 교육이 도움이 되는가라는 설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어 습득에 도움’에서는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이 보통 정도에 응답이 집중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쉽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통성 확인’에서도 남성들이 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삶의 모습과 세계관 확인’, ‘표현력 다양성 추구’, ‘일상 언어 이해에 도움’, ‘한국문학 이해에 도움’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이 약간 더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한 교육이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만, 자국에서 문화전달자로서 보다 더 높은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고전문학 작품의 선정과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4>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성별 인식

구 분	평 균	
	남 성	여 성
한국어 습득에 도움	3.82	3.36
전통성 확인	3.74	3.63
삶의 모습과 세계관 확인	3.52	3.75
표현력 다양성 추구	3.57	3.63
한국문학 이해에 도움	3.31	3.32
일상 언어 이해에 도움	3.48	3.36

주)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연령별 인식 차이

연령대별로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한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아래 <표 III-5>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국어 습득에 도움’과 ‘전통성 확인’ 부분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삶의 모습과 세계관 확인’에서는 20~25세 미만과 30세 이상에서 대체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20세 이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현력 다양성 추구’에서는 20~25세 미만 사이에 있는 유학생과 어학연수생들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문학 이해에 도움’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이 고른 연령대에서 유사한 인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상 언어 이해에 도움’ 부분에서는 30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이 일상생활에서 언어적 소통하는 데 도움이 잘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III-5>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연령별 인식

구 분	평 균			
	20세 이하	20~25세	25~30세	30세 이상
한국어 습득에 도움	3.31	3.61	3.67	3.75
전통성 확인	3.54	3.67	3.78	3.75
삶의 모습과 세계관 확인	3.31	3.70	3.59	3.75
표현력 다양성 추구	3.54	3.64	3.52	3.50
한국문학 이해에 도움	3.38	3.28	3.41	3.25
일상 언어 이해에 도움	3.31	3.46	3.30	3.75

주)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이주 유형별 인식 차이

유학을 목적으로 이주한 조사대상자들과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이주한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인

식을 조사하여 그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모든 부분에서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한 조사대상자들이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한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유학생들을 위한 고전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전공에 활용될 수 있는 고전문학 작품을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어교육에서 유사 전공 유학생 집단에 맞춤형 고전문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6>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이주 유형별 인식

구 분	평 균	
	유 학	어학연수
한국어 습득에 도움	3.51	3.95
전통성 확인	3.62	3.95
삶의 모습과 세계관 확인	3.61	3.73
표현력 다양성 추구	3.56	3.77
한국문학 이해에 도움	3.29	3.45
일상 언어 이해에 도움	3.37	3.64

주)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거주 지역별 인식 차이

조사대상자들의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국어 습득에 도움’, ‘전통성 확인’, ‘일상 언어 이해에 도움’ 부분에서는 대구 지역 조사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로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북 지역 조사대상자들은 ‘한국어 습득에 도움’에서, 충남 지역 조사대상자들은 ‘삶의 모습과 세계관 확인’과 ‘표현력 다양성 추구’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인식도가 높았고 전남 지역은 ‘한국문학 이해에 도움’에서만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별 인식도 차이는 표준화되어 있는 한국어교육 교재가 있지 못한 데서 오는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한국어 교육 교재에 대한 표준화를 실시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현재 각 대학별로 한국어학당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한국어교육 교재들을 살펴보면, 특정 대학 한국어학당에서는 고전문학 작품이 전혀 수록되지 않은 현상도 보여주고 있으며, 또 어떤 대학에서는 너무 과다하게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기관별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²⁴⁾

<표 III-7>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거주 지역별 인식

구 분	평 균			
	대 구	경 북	충 남	전 남
한국어 습득에 도움	3.80	3.80	3.30	3.20
전통성 확인	3.83	3.60	3.55	3.00
삶의 모습과 세계관 확인	3.65	3.40	3.68	3.20
표현력 다양성 추구	3.56	3.60	3.68	3.00
한국문학 이해에 도움	3.21	4.20	3.30	4.00
일상 언어 이해에 도움	3.48	3.20	3.39	3.00

주)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4) 이에 대해서는 IV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5)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학습 기간별 인식 차이

대체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미만 정도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는 유학생과 어학연수생들이 고전문학 작품이 한국어 습득과 같은 다양한 방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국문학 이해에 도움’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어 향후 한국어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고전문학 작품 선별에 대한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III-8>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학습 기간별 인식

구 분	평 균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한국어 습득에 도움	3.59	3.74	3.47	3.39
전통성 확인	3.64	3.90	3.32	3.72
삶의 모습과 세계관 확인	3.59	3.90	3.21	3.61
표현력 다양성 추구	3.68	3.72	3.11	3.67
한국문학 이해에 도움	3.43	2.97	3.63	3.44
일상 언어 이해에 도움	3.64	3.44	3.11	3.17

주)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한국어 능력 수준별 인식 차이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한 언어교육이 조사대상자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들에게 있어 초기 즉 본인의 한국어 실력이 낮을 때는 상당한 도움

이 된다고 인식한 반면, 중상으로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 수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결과들은 작품 선정과 제한적 고전작품 활용에서 오는 현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III-9>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한국어 능력 수준별 인식

구 분	평 균			
	상	중	하	모 림
한국어 습득에 도움	3.67	3.45	3.92	3.67
전통성 확인	3.73	3.55	4.08	3.58
삶의 모습과 세계관 확인	3.53	3.55	4.00	3.50
표현력 다양성 추구	3.47	3.59	3.92	3.17
한국문학 이해에 도움	3.53	3.32	3.58	2.50
일상 언어 이해에 도움	3.20	3.38	3.75	3.25

주)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언어 수준이 낮을 때는 언어의 다양성을 배우는 데 있어 고전문학 작품이 용이한 반면, 한국어 수준이 높아갈수록 조사대상자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적합한 고전문학 작품이 선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전에 한국어 수준별 고전문학 작품 선호도를 조사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5. 인구통계적 요인과 한국어교육 만족도의 상관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른 한국어교육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별로 평균 비교 분석을 해본 결과 아래와 같이 분석되었다.

성별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30세 이상’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0~25세’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 조사대상자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들 간의 만족도 평균 비교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지역’과 ‘충남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대구 지역’에서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이 여타 지역에서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는 조사대상자들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어교육 기간에 따른 만족도는 ‘6개월 이상~1년 미만’ 교육을 받은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한국어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능력 수준별로 보면 ‘중급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 정리해 보면, 한국어교육을 6개월에서 1년 미만 받고 한국어 수준이 중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20~25세 미만의 여성들이 한국어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수준이 중급 정도가 되었을 때, 그리고 대도시 지역일수록 대체적으로 언어교육에 보다 더 적극성을 보여주는 데서 오는 일련의 현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III-10> 인구통계적 요인과 한국어교육 만족도의 상관성

변 수	집 단	만족도 평균
성 별	남	3.67
	여	3.78
연 령	20세 이하	3.46
	20~25세	3.84
	26~30세	3.48
	30세 이상	4.00
이주 유형	유학	3.72
	어학연수	3.73
거주 지역	대구	3.77
	경북	3.20
	충남	3.73
	전남	3.60
한국어교육기간	6개월 미만	3.52
	6개월 이상~1년 미만	4.08
	1년 이상~2년 미만	3.53
	2년 이상	3.67
한국어 능력	고급	3.47
	중급	3.86
	초급	3.54
	모름	3.67

주)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약간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IV.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고전문학 활용 양상

앞에서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습자들이 고전문학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행 한국어 교재들은 이런 학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고전문학 작품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 III장의 결과를 토대로 본장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5개 대학 기관용 한국어 주교재를 선택하여 교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서강대학교 『서강한국어』, 서울대학교 『한국어』, 연세대학교 『연세한국어』,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한국어』 등 5개 대학 한국어 주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을 일찍부터 시작하였으며, 매년 많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또한 기타 대학이 위의 5개 대학의 한국어 주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⁵⁾ 한국어 주교재

25) 5개 대학 한국어 교육기관의 상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대 한국어문화교육센터는 1986년에 설립된 한국어·한국문화 전문 교육 기관이며, 매년 약 3,000여 명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서강대 한국어교육원은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매년 약 1,300여 명의 학생이 한국어교육원에 등록하고 있다. 서울대 한국어교육센터는 1969년에 개설되었으며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여 유창하고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다. 연세대 한국어학당은 1959년 연세대학교 부속 교육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매 학기 약 1,7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 연수를 받고 있다. 2012학년도 가을학기까지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들이 144개국 100,044명에 이르며 졸업생 수는 5,865명에 달하고 있다.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은 1988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정규과정이 개설되었으며 2012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2012/2013년도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한국어 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분석을 통하여 문학 작품들이 얼마나 수록되어 있으며 또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 중에서 고전문학 작품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선택된 고전문학 작품들이 제대로 적합하게 선정된 것 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렇게 파악된 내용들이 일반적인 교재의 의미와 기능에 부합하는지, 현행 한국어 교재가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에 대한 내용 조사

독학용 한국어 교재와 기관용 교재(대학 기관용 교재와 정부 산하 기관 및 사설 기관용 교재) 중에서 본고는 대학 기관용 정규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주교재를 선택하여 분석하기로 제한하였다. 대학 기관용 한국어 교재는 주로 그 기관이 속한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문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문 목적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고의 입장에서는 이들 교재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한국어 교재는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서강대학교 『서강한국어』, 서울대학교 『한국어』, 연세대학교 『연세한국어』,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한국어』(이상 가나다 순) 등 다섯 가지다.

1)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에서 발간한 『재미있는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 구조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말하기 연습을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 의사소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교재는 재미있고 다양한 말하기 활동을

통해 그 의미와 쓰임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어 학습의 단계별 목표²⁶⁾는 다음과 같다.

(10)

- 초급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한국어를 배우고 인사 예절, 식사 예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를 배우며 간단한 생활문을 쓸 수 있도록 한다.
- 중급 단계에서는 짧은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읽는 것을 배우며 자주 사용되는 관용 표현,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이나 풍습 등에 대해 배우며 격식에 맞게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 등을 배운다.
- 고급 단계에서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와 관련된 친숙한 주제에 대해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을 배우며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 구어와 문어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것 등을 배운다.

교재 구성은 기능, 활동, 어휘, 문법, 발음, 문화로 되어 있다. 『재미있는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 현황은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문학 작품 수록 현황

단 계	교재	장르 시대		작품	작가	제시형태	학습 영역
		장르	시대				
고 급	5	시	현대	진달래꽃	김소월	전문	읽기/말하기
		시	현대	서시	윤동주	전문	읽기/말하기/쓰기
		시	현대	꽃	김춘수	전문	읽기/말하기
		시	현대	승무	조지훈	전문	읽기/말하기
		수필	현대	나무	이양하	전문	읽기/말하기/쓰기
	6	소설	현대	봄·봄	김유정	요약문	읽기/말하기
		소설	현대	누가 해변에서 함부로 불꽃놀이를 하는가	김애란	요약문	읽기/말하기/쓰기

26) 각 대학의 한국어교육 목표 및 교육 내용은 각 대학교의 한국어 정규과정의 급별 교육 목표 및 교육 내용을 참조하여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한국어 단기과정과 집중과정 중에서 여기서는 집중과정의 교육목표를 정리하였다.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교재에는 매 과마다 문화 학습의 항목이 있으며 이 부분의 내용 학습을 통하여 한국인의 음식 문화, 외식 문화, 한국 남성 병역, 여성들의 머리 스타일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교재는 최근에 나온 교재로서 최신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초급과 중급에서는 문학 작품이 한편도 없으며 고급 단계에서만 문학 작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 고급 단계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학 작품은 모두 현대문학 작품이고, 고전문학 작품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으며²⁷⁾, 다른 교재에 비해 현대문학 작품의 수도 적다. 학습 영역으로 보면 읽기와 말하기가 위주고 쓰기 영역은 적은 편이다.

2) 서강대학교 『서강한국어』

서강대학교의 한국어 정규과정은 한국어교육원의 중심 프로그램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 교재는 실제 생활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주제들을 골라 표현의 문맥적 의미와 사용을 다룬 문법 학습 자료 추가와 더불어 그림과 사진, 디자인을 현대화하였다. 서강대학교에서 편찬한 『서강한국어』 교재는 1A·1B, 2A·2B, 3A·3B, 4A·4B, 5A·5B로 나누어져 있다. 초급 단계는 1A·1B, 2A·2B; 중급 단계는 3A·3B, 4A·4B; 고급 단계는 5A·5B로 나눌 수 있겠다. 한국어 학습의 단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11)

- 초급 단계에서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더불어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 중급 단계에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27) 활용도가 높은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는 최근에 나온 교재이지만 고전문학 작품은 한편도 실려 있지 않다. 하지만 고려대학교의 한국어 주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런 실태를 보여주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있다.

- 고급 단계에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일상적인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²⁸⁾

서강대학교는 학생 중심, 말하기 중심의 한국어 수업을 하며 실생활과 관련된 말을 교육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문화 학습으로 한국의 대중문화, 호칭, 명절음식 등으로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서강한국어』에 수록된 문학 작품 현황은 다음 <표 IV-2>와 같다.

<표 IV-2> 서강대학교 『서강한국어』 문학 작품 수록 현황

단 계	교재	장르	시대	작품	작가	제시형태	학습 영역	
중 급	3B	설화	고전	금도끼와 은도끼		요약문, CD	듣기/말하기	
	4A	고대 소설	고전	심청전		줄거리	읽기/말하기	
		설화	고전	선녀와 나무꾼		요약문	읽기/말하기 듣기/쓰기	
	4B	신화	고전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신화		요약문	읽기/말하기	
		신화	고전	단군신화		요약문	읽기/말하기	
		시	현대	꽃	김춘수	전문	읽기/말하기	
		시	현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전문	읽기/말하기	
		수필	현대	구두	계용목	전문	읽기	
	고 급	5A	시	현대	말의 힘	황인숙	전문	읽기/말하기/쓰기
			수필	현대	나의 사랑하는 생활	피천득	전문	읽기
5B		설화	고전	청개구리 이야기		전문(그림)	읽기/말하기	
		설화	고전	흥부와 놀부		요약문(그림)	읽기/말하기	
		설화	고전	해님 달님		전문(그림)	읽기/말하기	

28) 서강대학교에서 한국어 능력 5급 이상을 졸업한 학생은 서강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서강한국어』 교재는 4급부터 문학 작품이 나오며 13편의 문학 작품 중에서 총 8편의 고전문학 작품을 제시하고 있다. 『서강한국어』 교재의 고전문학 작품 수는 많지 않지만 고전문학 작품의 비중이 문학 작품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61.5%를 차지한다.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서는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어느 정도의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바탕이 된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 수필, 설화, 소설 등 다양한 문학 장르의 작품을 활용하여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습 영역으로는 읽기와 말하기 부분이 많고 중급을 넘어선 고급 단계이지만 쓰기 부분이 적은 편이다.

3) 서울대학교 『한국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의 한국어 정규과정은 통합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문법과 구문 연습을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도록 엮여졌다. 한국어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전 과정을 마치면 한국에서의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여러 유형의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한국어 구사 능력을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의 네 가지 면에서 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한국어 학습의 단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12)

- 초급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 중급 단계에서는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며 한국문화를 접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한다.
- 고급 단계에서는 언어생활에서 불편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하며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게 한다.

서울대학교에서 편찬한 『한국어』 교재에 단계별로 수록되어 있는 문학 작품 현황은 다음 <표 IV-3>과 같다.

<표 IV-3> 서울대학교 『한국어』 문학 작품 수록 현황

단계	교재	장르	시대	작품	작가	제시형태	학습 영역	
초급	2	동시	현대	봄은 따뜻하다		전문	읽기/말하기/쓰기	
		설화	고전	꿀단지이야기		요약문(그림)	읽기/말하기	
중급	3	전래동화	고전	거울		전문	읽기/말하기	
		시	현대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	전문(악보)	읽기	
		동요	현대	옹달샘	윤석중	전문(악보)	읽기	
		동요	현대	고향의 봄	이원수	전문(악보)	읽기	
		시	현대	꽃	김춘수	전문	읽기	
		학생 창작시	현대	하늘	토마스 프랑스	전문	읽기	
		4	신화	고전	단군이야기		요약문	읽기/말하기/쓰기
			설화	고전	우씨와 허씨		요약문	읽기/말하기
			민요	고전	아리랑		아리랑(가사)	듣기, 말하기
			고소설	고전	홍부와 놀부		회곡 전문	읽기/말하기
			시	현대	저녁에	김광섭	전문	읽기
			시	현대	서시	윤동주	전문	읽기
			노래	현대	아침이슬	김민기	전문(가사)	읽기
			시	현대	내 마음	김동명	전문	읽기
		고급	6	현대소설	현대	소나기	황순원	개작문
현대소설	현대			겨울 나들이	박완서	개작문	읽기	

서울대학교의 한국어 교재는 중급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문학 작품이 시작되어 고급 단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재에서는 시, 설화, 소설, 희곡, 동요,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이 실려 있고, 중급 단계에서는 모든

과에 있는 연습 부분에 본문 내용 이해하기 연습으로 읽고 대답하기가 있다. 또한 어휘나 문법 연습으로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한국문화교육까지 이루어지도록 교재를 구성하고 있다. 총 18편의 문학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그중 고전은 6편으로 전체의 3분에 1에 해당한다.

4) 연세대학교 『연세한국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을 만나 여러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한국계 및 외국계 기업의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연세대학교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 학습 단계별로 요구되는 내용을 주제로 대화가 구성되었으며 어휘와 문법에 대한 집중적인 연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제와 활동으로 구성된 교재이다. 또한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를 기초로 여러 가지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면서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한국어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어 학습의 단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13)

- 초급 단계에서는 한글을 완전히 익혀 읽고 쓸 수 있으며 배운 내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일상의 간단한 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 중급 단계에서는 배운 기본 문법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으며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회화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주제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으며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고급 단계에서는 실생활 및 전문적인 분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경제, 문화, 전통 등에 관한 한국적 가치관을 이해하고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언어 능력을 기른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한국어 정규과정 외 선택반으로 ‘문학반’이 개설되어 보다 깊이 있는 문학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편찬한 『연세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4>와 같다.

<표 IV-4> 연세대학교 『연세한국어』 문학 작품 수록 현황

단 계	교재	장르	시대	작품	작가	제시형태	학습 영역
고 급	6	시	현대	고향의 봄	이원수	전문	읽기/말하기
		시조	현대	가고파	이은상	일부분	읽기
		시	현대	향수	정지용	일부분	읽기/말하기
		시	현대	진달래꽃	김소월	전문, 해설문	읽기/말하기
		시	현대	먼 훗날	김소월	전문,	읽기/말하기
		시조	고전	오우가	윤선도	전문, 해설문	읽기
		고소설	고전	춘향이의 사랑		요약문	읽기

연세대학교의 『한국어』 교재는 초급과 중급에는 문학 작품이 한 편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²⁹⁾ 연세대학교 고급 단계의 한국어 교재에 실린 문학 작품은 시, 시조, 고소설로 총 7편이며 이 중 고전은 시조 1편, 고소설 1편이 실려 있다. 문학 작품의 교재 구성은 주로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연세대학교의 부교재 『한국어 읽기』 교재는 타 대학교의 한국어 주교재와 달리 읽기를 위해 별도로 만들어진 교재인데 시, 수필, 소설 등 장르별로 20여 편의 문학 작품이 실려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각 대학교의 한국어 주교재를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기에 연세대학교의 『한국어 읽기』 교재는 참고 자료로 하고 분석에 넣지 않았다.

29) 연세대학교 부교재인 『한국어 읽기』에는 중급부터 문학 작품이 등장한다.

5)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한국어』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은 국내 최초의 의사소통 중심 교재 『말이 트이는 한국어』를 발간한 지 12년 만에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춘 『이화한국어』 교재를 발간하였다. 이 교재는 네 가지 언어 기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면서도 특히 말하기 능력을 강화하도록 고안되었으며 매 과목마다 문학 맛보기를 통해 언어와 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외국인 학습자가 단순 암기 방식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준다. 한국어 학습의 단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14)

- 초급 단계에서는 한글을 익혀 읽고 쓸 수 있으며 일상적인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쓸 수 있고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 중급 단계는 복잡한 일상생활과 간단한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격식이 있는 토론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친숙한 사회적인 주제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 고급 단계에서는 정치·경제·사회·역사 등 사회 전반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 고급한 표현을 사용하여 토론할 수 있다. 그리고 시사적인 주제의 기사문, 광고문, 비평문 등을 읽고 쓸 수 있으며 보고서, 소논문 작성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편찬한 『이화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5>와 같다.

<표 IV-5>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한국어』 문학 작품 수록 현황

단 계	교 재	장르	시대	작품	작가	제시형태	학습 영역
초 급	1-1	시	현대	개구리	한하운	전문	읽기/말하기/쓰기
		시	현대	일요일 행진곡	김기림	요약문	읽기/말하기
		시	현대	섬	정현종	전문	읽기/말하기
		시조	현대	오륙도	이은상	요약문	읽기/말하기
		시	현대	고백	고정희	전문	읽기/말하기
		시	현대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	전문	읽기/말하기
	1-2	전래동화	고전	소금이 나오는 뱃돌		전문	읽기, 듣기
		시	현대	새로운 길	윤동주	전문	읽기/말하기
		전래동화	고전	호랑이와 꽃감		전문	읽기/말하기
		민요	고전	아리랑	작자 미상	전문	읽기/말하기
		전래동화	고전	청개구리		전문	읽기/말하기
		시	현대	통화	문인수	전문	읽기
		판소리	고전	사랑가		요약문	읽기, 말하기
		시	현대	피아노	전봉건	요약문	읽기/말하기
	2-1	시	현대	나비	이준관	전문	읽기/말하기
		시	현대	어머니	한하운	전문	읽기/말하기
		노래	현대	냉면	박태준	전문 (악보)	읽기/말하기
		시	현대	선물	피천득	전문	읽기/말하기
		시	현대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요약문	읽기/말하기
		전래동화	고전	토끼와 거북이		전문	읽기/말하기
		전래동화	고전	우산 장수와 짚신 장수		전문	읽기/말하기
	2-2	수필	현대	얼굴	조경희	전문	읽기/말하기
		노래	현대	설날	윤극영	전문 (악보)	듣기, 말하기
		시	현대	은행잎 편지	김한룡	전문	읽기, 말하기
		전래동화	고전	달걀 열두 개로 한 축하		전문	읽기/말하기

중 급		시	현대	자전거	김종길	요약문	읽기/말하기	
		노래	현대	그 집 앞	이은상	전문 (악보)	읽기, 듣기, 말하기	
		동요	현대	고향의 봄	이원수	전문	읽기, 듣기, 말하기	
		전래동화	고전	흥부와 놀부		전문	읽기/말하기	
	3-1	시	현대	딸을 위한 시	마중하	전문	읽기, 쓰기	
		노래	현대	고향 생각	현제명	전문	읽기/말하기	
		수필	현대	소리 없는 소리	법정	전문	읽기/말하기	
		수필	현대	나의 사랑하는 생활	피천득	전문	읽기, 말하기	
		시	현대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	전문	읽기/말하기	
		시	현대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김용택	전문	읽기/말하기	
		시	현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전문	읽기/말하기	
		3-2	희곡	현대	시집가는 날	오영진	전문	읽기/말하기
			수필	현대	괜찮아	장영희	전문	읽기/말하기
			시	현대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은	정현종	전문	읽기/말하기
			소설	현대	소나기	황순원	요약문	읽기/말하기
			수필	현대	방망이 깎던 노인	윤오영	전문	읽기/말하기
			시	현대	꽃	김춘수	전문	읽기/말하기
			수필	현대	폭포와 분수	이어령	전문	읽기/말하기,
			시	현대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현	전문	읽기/말하기
		4	시	현대	저녁에	김광섭	전문	읽기/말하기
	수필		현대	왕후의 밥, 절인의 찬	김소운	전문	읽기/말하기	
	시		현대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켜수 있다면	장정일	전문	읽기/말하기	
	시		현대	바람에게도 길이 있다	천상병	전문	읽기/말하기	
	소설		현대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요약문	읽기/말하기	
	시		현대	칼국수	문인수	전문	읽기/말하기	

고 급		시	현대	설날 아침	김종길	전문	읽기/말하기
		소설	현대	사랑손님과 어머니	주요섭	요약문	읽기/말하기
		시	현대	저문 강에 삽을 씻고	정희성	전문	읽기/말하기
		시조	고전	십년을 경영하여 거대한 자연, 작은 인간	송순	전문	읽기/말하기
	5	수필	현대	나무의 노래	없음	전문	읽기/말하기
		수필	현대	어미 새의 사랑		전문	
		수필	현대	‘마음이’와 ‘사랑이’처럼		전문	
		시	현대	귀천	천상병	전문	읽기/말하기
		시	현대	내 마음은	김동명	전문	읽기/쓰기
		6	소설	현대	아홉 살 인생	위기철	전문 (연극대본)

이화여자대학교의 『이화한국어』 교재에는 타 대학교의 주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 수보다 훨씬 양이 많고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이 실려 있다. 총 61편이 실려 있는데 그중 고전문학 작품은 10편을 차지하고 있다. 고전문학 작품이 전체 문학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4%로 고전문학 작품의 비중이 지나치게 부족한 편이다.

이상에서 분석한 각 대학교의 한국어 주교재는 대부분 통합형 교재다. 통합형 교재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을 통합하여 가르칠 목적으로 개발된 교재를 말한다. 통합형 교재는 학문 목적의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에게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부교재나 심화용 교재가 편찬되어야 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대학의 한국어교육과정에서는 거의 의사소통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급부터 문학을 활용한 교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한국어 교재의 문학 작품에 대한 계량적 분석

각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문학 작품을 활용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이번에는 앞서 조사한 5개 대학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전체 5개 대학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장르별로 나누어 각 장르별 분포 양상을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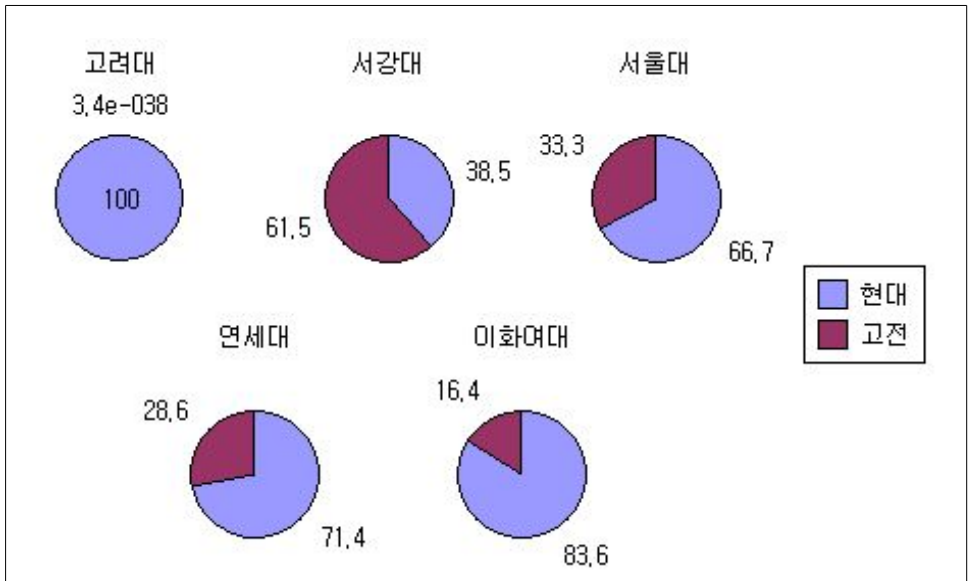
1) 교재별 고전/현대 비율 분석

우선 5개 대학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정리함으로써 각 교재별 고전문학의 비중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³⁰⁾ 아울러 문학 작품이 급수별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30) 배순향(2012:22~28)은 「고전텍스트를 활용한 언어·문화 통합교육 방안 연구」에서 초급부터 고급까지 대학교 자체에서 개발된 교재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9개 대학교의 한국어 주교재를 선정하여 분석했는데 여기서도 본고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핵심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9개 대학교의 한국어 주교재 중에서 고전 작품 수록 빈도를 분석한 결과 이화여자대학교의 주교재가 고전 작품 수록이 제일 많았고 전체 급수 중에서는 4급이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5급이 9.6%를 차지하였고, 6급이 11.6%로 나타났다. 고급보다 중2급에서 많은 분포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서는 중2급에서는 짧은 고전 작품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대학교 자체가 한국어 교재를 출간하여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개정판을 6급까지 출간한 연세대와 고려대의 주교재를 분석한 결과 연세대의 경우 개정 전의 6.7%보다 높은 10.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고려대 개정판의 경우 문화란을 추가 구성하여 문화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재미있는 한국어5』 고급 단계에서 시 4편과 수필 1편이 수록되어 있을 뿐 고전 작품은 한편도 없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한국어 주교재에서 고전텍스트가 언어·문화 통합교육의 제재로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V-6> 각 교재별 문학 작품 수록 양상 비교

급수 기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총계		비율(%)	
	현	고	현	고	현	고	현	고	현	고	현	고	현대	고전	현대	고전
	대	전	대	전	대	전	대	전	대	전	대	전	현대	고전	현대	고전
고려대	0	0	0	0	0	0	0	0	5	0	2	0	7	0	100	0
서강대	0	0	0	0	0	1	3	4	2	3	-	-	5	8	38.5	61.5
서울대	0	0	1	0	5	2	4	4	0	0	2	0	12	6	66.7	33.3
연세대	0	0	0	0	0	0	0	0	0	0	5	2	5	2	71.4	28.6
이화여대	9	5	11	4	15	0	9	1	6	0	1	0	51	10	83.6	16.4
소계	9	5	12	4	20	3	16	9	13	3	10	2	80	26	75.5	24.5
합계	14		16		23		25		16		12		10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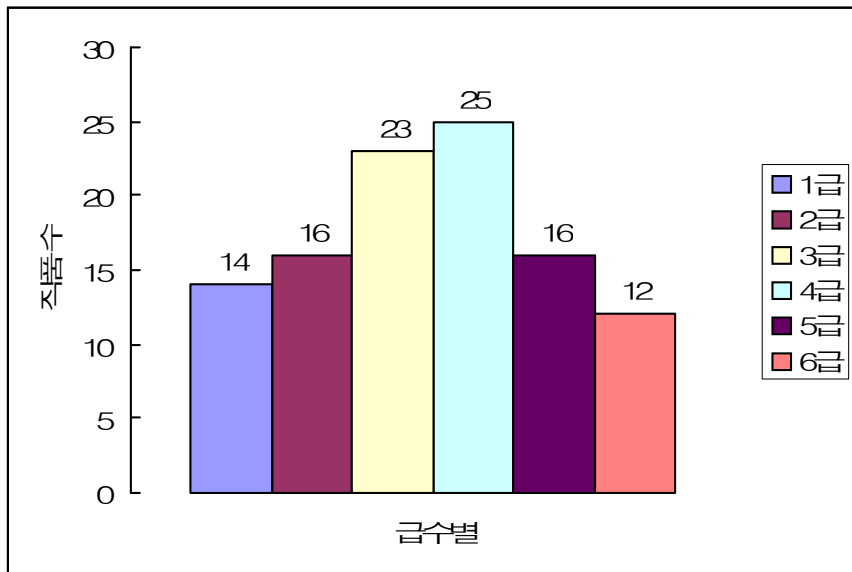


<그림 IV-1> 한국어 교재 고전/현대 작품 비중도

위의 표와 그림을 통해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문학 작품 수록이 초급 단계보다는 주로 중급과 고급 단계 중심으로 실려 있다는 점이다. 고려대학교

와 연세대학교는 고급 단계에서만 문학 작품을 활용하고 있으며, 서강대학교에서는 중급과 고급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다. 초급부터 고급 단계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활용하고 있는 곳은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두 곳이 있으나 서울대학교는 초급 단계인 2급에 달랑 한 작품이 실려 있을 뿐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만이 고르게 문학 작품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화여자대학교는 모든 단계에서 문학 작품을 고르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기관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특히 초급:중급:고급이 29:25:7로서 초급에서 오히려 문학 작품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이한 점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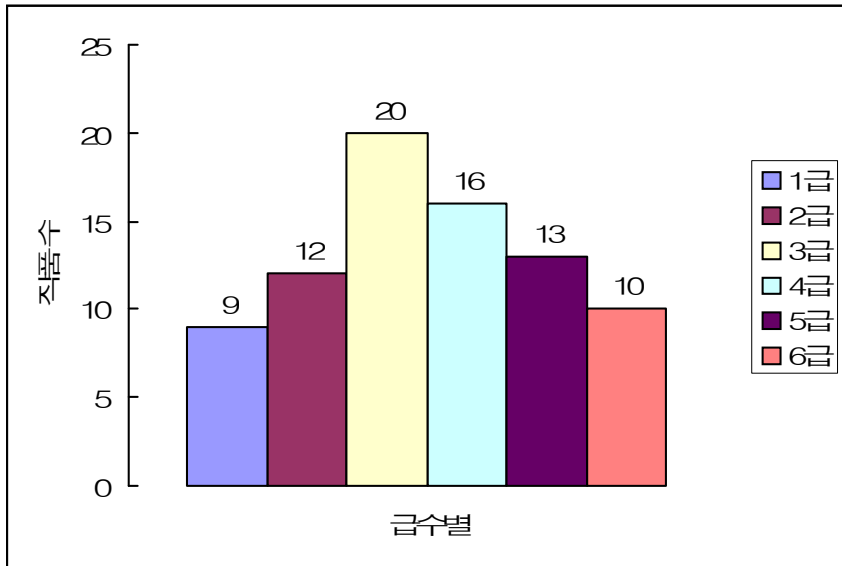
위의 표와 그림을 통해 다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각 교재별 편차가 매우 심하다는 점이다. 우선 전체 문학 작품 수록 양을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작품을 수록한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총 61편을 수록하고 있는 데 비해 가장 적은 양을 수록한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고작 7편을 수록하는 데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의 배분도 상당히 들쭉날쭉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고려대학교의 경우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의 배분이 100:0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비해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66.7:33.3으로 현대와 고전의 비율이 2:1로 나타나고 있다. 또 서강대학교의 경우는 38.5:61.5로 고전문학의 비중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각 교재별로 심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문학 작품의 활용 및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의 수록 비율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각 기관별로 개별적 판단에 의존해 교재 편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이런 현상은 급수별 문학 작품 수록 빈도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V-2> 한국어 교재 급수별 문학 작품 비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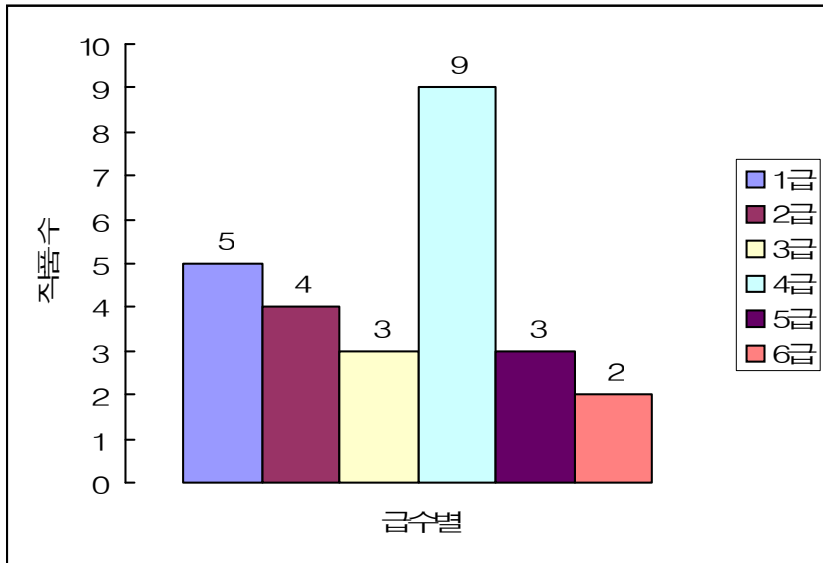
5개 대학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급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위의 그림과 같다. 각 급수별 작품수를 살펴보면, 1급에서 14개 작품으로 시작하여 중급으로 가면서 작품 수가 점점 증가하여 4급에서 25개 작품으로 가장 많은 수를 보이다가 다시 고급으로 넘어가면서 작품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초급 단계에 비해 중급 단계에서 작품 수가 훨씬 많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중급 단계에 비해 고급 단계로 가면서 작품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는 고급 단계로 가면서는 작품 수보다는 질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재들에서 초급과 중급 단계에서는 쉽고 짧은 작품 위주로 활용하고 있는 데 비해 고급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렵고 긴 작품을 주로 선택하여 수록하는 경향으로 보여주고 있다. 위의 그림은 이런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규칙성이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으로 나누어 분석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일까?



<그림 IV-3> 한국어 교재 급수별 현대문학 작품 비중도

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학 한국어 주교재 급수별 현대문학 작품 수 분포도를 살펴보면, 중급 단계에 가장 많은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초급 단계와 고급 단계는 비슷한 수의 작품이 수록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급 단계와 중급 단계에서는 단편 혹은 요약문의 현대 작품을 가지고 진행하되 초급은 적은 수를, 중급은 그보다 많은 수를 가르치고, 고급 단계에서는 장편의 소수 작품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교육에서 수준별 작품에 따른 단계별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IV-4> 한국어 교재 급수별 고전문학 작품 비중도

하지만, 고전문학 작품 수록 현황을 보면 현대문학 작품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초급에서는 고전문학 작품이 4~5편이던 것이 중1급에서 3편으로 줄어들었다가 중2급에서 3배로 증가함으로써 어떤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시 고급에서는 고전 작품이 2~3편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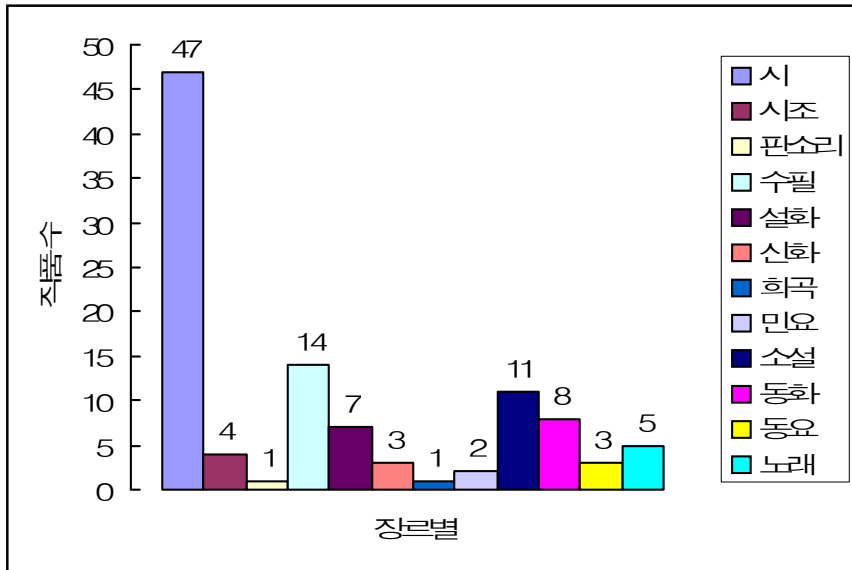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한국어 교재에 있는 고전문학 작품 수록은 현대문학 작품과 달리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4급에서 갑자기 증가함으로써 언어교육에서 고전 작품을 활용한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고전문학 작품 역시 현대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칙성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교재별 장르 분포 현황 및 분석

현재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서 어떤 장르가 많이 실려 있고 어떤 장르가 적게 실려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한국어 교재별 문학 작품 장르 수록 현황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IV-7> 한국어 교재별 장르 분포 현황

기관	교재	시	시조	판소리	수필	설화	신화	희곡	민요	소설	동화	동요	노래	소계	합계	
		현대	현대	고전	고전	현대	고전	고전	현대	고전	현대	고전	현대			현대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5	4	-	-	-	1	-	-	-	-	-	-	-	5	7	
	재미있는 한국어6	-	-	-	-	-	-	-	-	2	-	-	-	2		
서강대	서강한국어3B	-	-	-	-	1	-	-	-	-	-	-	-	1	13	
	서강한국어4A	-	-	-	-	1	-	-	-	1	-	-	-	2		
	서강한국어4B	2	-	-	-	1	-	2	-	-	-	-	-	5		
	서강한국어5A	1	-	-	-	1	-	-	-	-	-	-	-	2		
	서강한국어5B	-	-	-	-	-	3	-	-	-	-	-	-	3		
서울대	한국어2	1	-	-	-	-	-	-	-	-	-	-	-	1	18	
	한국어3	3	-	-	-	1	-	-	-	-	1	2	-	7		
	한국어4	3	-	-	-	1	1	-	1	1	-	-	1	8		
	한국어6	-	-	-	-	-	-	-	-	2	-	-	-	2		
연세대	한국어6	4	1	1	-	-	-	-	-	1	-	-	-	7	7	
이화여대	이화한국어1-1	5	1	-	-	-	-	-	-	-	-	-	-	6	61	
	이화한국어1-2	3	-	-	1	-	-	-	1	-	-	3	-	8		
	이화한국어2-1	4	-	-	-	-	-	-	-	-	2	-	1	7		
	이화한국어2-2	2	-	-	-	1	-	-	-	-	2	1	2	8		
	이화한국어3-1	4	-	-	-	2	-	-	-	-	-	-	1	7		
	이화한국어3-2	3	-	-	-	3	-	-	1	-	1	-	-	8		
	이화한국어4	6	-	1	-	1	-	-	-	2	-	-	-	10		
	이화한국어5	2	-	-	-	4	-	-	-	-	-	-	-	6		
이화한국어6	-	-	-	-	-	-	-	-	1	-	-	-	1			
소 계		47	2	2	1	14	7	3	1	2	8	3	8	3	5	106
합 계		47	4	1	1	14	7	3	1	2	11	8	3	5	106	



<그림 IV-5>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의 장르별 분포도

우선 장르 선택의 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교재들이 얼마나 많은 장르들을 선택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고려대학교가 총 14개 장르³¹⁾ 중 3개, 서강대학교가 5개, 서울대학교가 9개, 연세대학교가 4개, 이화여자대학교가 11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각각 3개와 4개로 낮게 나타난 것은 작품 수록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고 반면에 이화여자대학교가 11개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다른 기관에 비해 작품 수록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서울대학교라 할 수 있는데 아주 많다고 할 수 없는 18개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들 작품이 9개 장르로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이다.³²⁾

31) 표와 그림에 제시된 것은 12개인데, 이 중 시조와 소설은 각각 현대와 고전으로 다시 나누어진 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대시조와 고시조, 현대소설과 고소설을 각각의 장르로 보아 총 14개라 한 것이다.

32) 이런 점과 현대:고전의 비율이 2:1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서울대학교의 경우 교재 편찬 시에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의 배분 문제 및 장르의 다양화와 관련하여 나름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개별 교재 차원을 초월하여 전체를 통합한 상태에서 어떤 장르가 얼마나 선호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현대시 47, 현대시조 2, 고시조 2, 판소리 1, 현대수필 14, 설화 7, 신화 3, 현대희곡 1, 민요 2, 현대소설 8, 고소설 3, 전래동화 8, 동요 3, 노래가사 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위 1~3위가 현대시, 현대수필, 현대소설로서 현대문학이 고전문학에 비해 훨씬 많이 수록되고 있는 것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고전문학 중에서는 전래동화가 전체 공동 3위로 가장 선호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설화가 많이 수록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래동화 8편 중 7편이 이화여자대학교 초급 단계 교재에 실려 있는 것이고, 설화 7편 중 5편이 서강대학교 교재에 실려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재는 초급 단계에 가장 많은 작품을 실고 있으며, 서강대학교 교재는 고전문학의 비중이 현대문학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이다. 이는 고전문학 장르의 경우 현대문학 장르와 달리 5개 교재에 골고루 적용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기보다 특정 교재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특수한 현상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장르 분포에 있어서도 고전문학의 경우는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 교재 편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한국어 교재의 기능과 개선 방향

1) 한국어 교재의 기능

모든 종류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는 교사, 학습자, 그리고 교재라고 할 수 있다. 이중 교재는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습자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교재는 언어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측면, 즉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려하여 만들어야 한다. 교재는 교육 이론과 교수법 이론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대개 교수-학습의 효과

를 결정한다(임향란 외, 2012:15). 따라서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재가 좋아야 한다.

교사는 교재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교재로 배운다. 따라서 교재는 교수-학습의 기능을 담당한다. 노명완(1998:77~78)은 교재가 갖는 기능을 일곱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관점 반영의 기능: 교육 환경에 가장 적합한 교수-학습 이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내용 제공 및 재해석의 기능: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진술된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셋째, 교수-학습자료 제공의 기능: 언어 사용 기능을 익힐 수 있는 자료(읽기, 쓰기 자료 등)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교수-학습 방법 제시의 기능: 교사와 학습자에게 교수-학습의 과정별로 부여된 과제 및 과제 해결의 전략 등을 단계화하여 제시한다. 다섯째, 학습 동기 유발의 기능: 학습 내용을 제시하기 전에 과제와 관련된 학생들의 배경지식, 흥미, 태도를 높이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여섯째, 연습을 통한 기능 정착의 기능: 기능 획득을 위한 연습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일곱째, 평가 자료 제공의 기능: 교수-학습의 결과로서 평가 자료 및 방법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교재가 지니는 이러한 역할은 교수-학습 활동에서 교재가 갖는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재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확인해준다(김영만, 2005:140).

한국어교육 역시 어떤 내용의 교재로 어떤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1970년대부터 한국어 교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어 교재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로 많아졌다. 최근에는 학습자의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와 교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교재 연구사의 결과 최근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문화간 의사소통 접근법을 구현할 수 있는 교재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은 한국문화와는 다른 다양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한 학습자들이 서로 모인 가운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에 도달

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문화와 다른 이문화를 가진 학습자들에게 문화간 차이를 극복시키고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향(2010:317)은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한국어 교재를 검토한 논문에서 학습자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습득을 교재로써 고찰해야 하는 더욱 중요한 이유는, 교재가 교사와 학습자에게 권위적인 자료로 인식된다는 점에 있다고 하였다. 교재는 해당 사회의 문화와 시스템 등을 반영함으로써 교사와 학습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문화에 대한 견해를 갖게 한다. 한국어 교재는 이처럼 의사소통을 목표로 언어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동시에 목표 언어인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재 내용을 통해 학습자의 문화적 소통력을 높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2) 현행 한국어 교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기본적으로 현행 한국어 교재들은 언어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문학이나 문화 관련 글을 수록한 빈도가 낮은 편이다. 위 5종의 한국어 교재 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한국어』 교재가 양도 많고 비교적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어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나머지 4종의 경우는 문학 장르가 다양하지 못하고 문학 작품 수도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연세대학교의 경우 별도의 읽기 자료를 부교재로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지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이는 한국어교육은 언어교육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하여 언어교육의 일환으로 문화교육을 생각하고 문화교육의 일부로 문학교육을 생각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보다 문학 관련 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학을 활용한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언어교육과 분리된 독자적인 문학교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문학 또는 문화 관련 글의 비중이 낮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쉬운 한국어 교재가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

이다. 위 5종 한국어 교재를 보면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꽤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위 5종 교재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들 교재가 하나같이 한국어교육 대상자를 기초에서 고급까지 일률적인 단계로 구분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편찬된 것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즉 현행 한국어 교재는 대부분이 한국어교육 대상자들을 단지 몇 개의 단계로만 구분할 뿐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범용교재라는 데 문제가 있다.

고급 수준의 학습자는 수업 시간 내의 학습으로는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으며, 고급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기능별, 목적별 교재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현재 한국어 교재는 초급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중·고급 학습자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재 개발과 그들을 위한 심화 학습용 교재 혹은 부교재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다양한 변화를 교재에 즉각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교재를 편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재가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재 출간 후 현장 사용 빈도와 교수-학습 과정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이를 빠른 시간 내에 교재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 등이 발전되었는데도 아직도 오래전 교재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경우 아직까지 표준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그 반응을 살펴보고 교육 효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빠르게 구분한 뒤 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작품들은 즉각적으로 다른 작품으로 대체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들이 많이 쌓여야 문학 텍스트의 경우에도 어떤 표준화된 모델이 어느 정도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교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부수적인 것으로 교수용 지침서가

필요하다.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교사가 상당히 많아진 편이다. 그러나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배출된 까닭에 교사의 자질과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재에 대한 이해도가 제각각이고 교수 방법도 다른 경우가 많다. 교수용 지침서가 없으므로 교사들은 자신의 생각과 기존 경험에 의해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교재의 활용도도 떨어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한국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용 지침서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편 국외에서는 아직도 한국어교육에서 주로 문법 번역식 교수-학습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량의 번역문 제시는 좋은 점도 있지만 한국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학습자들이 모국어로 번역된 문장에 의지하고 거기에 치우쳐 학습하기 때문에 한국어 사용도가 낮아지고 한국어 능력도 빨리 향상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국외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에는 그 나라의 문학 작품을 일정 비율 수록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한국어 학습능력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 고전문학 활용과 교육 방안

Ⅲ장의 학습자 요구 조사 및 Ⅳ장의 교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학습자 단계별 고전문학의 교수요목을 설계해 보도록 하고 한국어교육에서 어떻게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하고 교육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고전문학교육의 목적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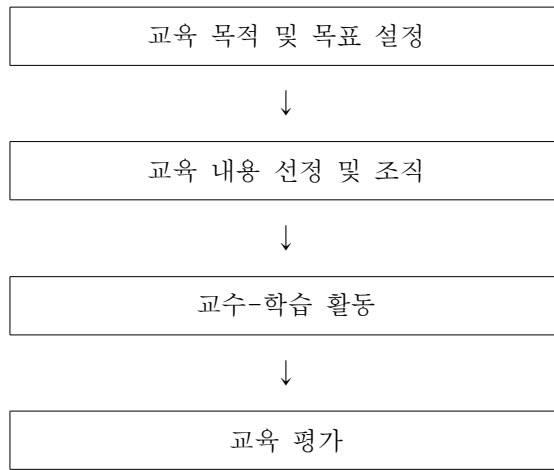
교육과정은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 실행, 평가, 그리고 관리를 위한 원리이며 절차이다. 교수요목은 교육과정의 하위 요소로 어떤 활동들이 수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간단한 틀로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떠한 순서에 의하여 가르칠 것인지를 다루는 것이다.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학습과제와 활동 등이 주 내용이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이전의 문법 중심 교수요목이나 상황 중심 교수요목에 기초한 교사 중심, 결과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 과정 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되어 왔다.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³³⁾은 학습자의 수준 및 필요에 따라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V-1>과 같다.

학습자 요구 조사 분석



33) 교육의 주체와 의사소통의 주체는 교사가 아니라 학습자이다. 교사 중심의 주입식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이 때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다.



<그림 V-1> 교육과정 개발 절차

교육과정의 개발 절차는 학습자의 요구 조사를 통하여 학습자와 목표 상황에 따라 교육 목적 및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적 및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수요목을 설계하며,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통하여 실제 현장 수업에서 평가를 거친다.

시대와 사회 그리고 지식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교육도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와 발전 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교육과정으로 부단히 바뀌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교육 목표도 재설정된다. 그러면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

한국어교육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가장 부진한 편에 속한다. 때문에 한국어교육 내에서 고전문학교육의 목표를 분명하게 독립적으로 설정한 것은 별로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목표를 제시한 몇 가지 논의들을 참고하여 고전문학교육의 목표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우선 고전문학교육은 국어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문학교육의 목표는 국어교육의 목표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고전문학교육의 목

표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학의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제7차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 목표(교육부, 1997:29)는 다음과 같다.

(15) <제7차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 목표>

- *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위의 전문 내용은 목표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이고, 아래의 내용은 이를 지식, 기능, 태도로 구체화한 진술이다. 위의 국어과 교육 목표 내용 중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민족의 언어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는 부분을 문학교육의 목표이자 고전문학교육의 목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며, 문학 작품을 생산하는 학습 활동을 함으로써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상상력이 향상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입식 교육으로 지식을 암기하게 하는 교육³⁴⁾이라기보다는 지식을 창출하고 운용하며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런 국어교육의 목표를 바탕으로 문학교육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34) 고전문학교육이 문학적 상상력, 감수성, 심미적 판단의 능력보다는 암기적 지식에 기울어지게 되면 학습자들이 흥미를 얻기가 어렵게 된다.

한 논의도 있다. 김대행 외(2000)에서는 언어 능력의 증진, 개인의 정신적 성장, 개인적 주체성 확립, 문화의 계승과 창조 능력 증진, 전인적 인간성 함양 등을 문학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상익(1998:20)은 고전문학교육의 목표를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16)

- 민족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 선인의 문학세계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하여
- 미적 감수성과 문학적 상상력을 기르기 위하여
-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 민족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기 위하여
- 세계문학 속에서 한국문학의 바른 위상과 방향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목표를 제시한 일부 논의들을 참조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바 윤여탁(2007:80~81)은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로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 문학을 통한 한국의 사회문화 교육, 한국문학에 대한 교육 등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과 문학을 통한 한국의 사회문화 교육은 문학을 통한 한국어교육을 세분화한 것으로 전자는 언어 능력 함양을, 후자는 문화능력 함양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의 한국문학에 대한 교육은 한국학 또는 한국문학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문학능력을 함양하고 세계문학 속에서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숙진(2008:51~53)은 현행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이 중급과 고급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초급 단계에서도 적절한 작품의 지문과 활용 방법을 제시한다면 문학 작품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학습자 수준을 초급 ·

중급·고급의 3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문학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7)

- 초급 단계 : 문학교육을 통해 한국어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고, 문학 작품에 나타난 보편적이고 친숙한 정서를 이해하도록 한다.
- 중급 단계 : 문학 작품에 표현된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고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고유한 사상이나 한국인의 행동 양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고급 단계 : 한국인의 고유한 정서를 이해하고 문학적으로 생각을 표현해 보게 한다.

장원기(2010:15)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모국에서의 기본 교육 중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단순히 내용 이해 수준의 문학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지루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하면서 문화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8)

- 문학교육을 통해 접한 한국문학 텍스트에서 한국인의 보편적인 정서와 가치, 문화, 습관을 이해한다.
- 언어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함께 문화능력 향상을 함께 도모한다.
- 한국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 능력을 기른다.

문혜진(2009:56~57)은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교육의 목표는 국어교과의 고전문학교육 목표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자기 조상이 아닌 학습 언어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차이도 존재한다고 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고전문학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9)

- 고전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함으로써 문학 자체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 고전문학 작품이 현재 자신의 삶과도 의미 있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 각국의 정서와 사상이 나타난 문학 작품을 한국어 고전문학 작품과 비교함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고 문화간 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고전문학 작품에 나타난 한국의 문화를 통해 한국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 고전문학 작품 속에서 사용된 국어의 쓰임을 통해 국어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상의 논의 가운데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윤여탁(2007)의 경우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윤여탁(2007)이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전문학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20)

- 한국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 한국고전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다.
- 한국고전문학의 실체와 속성에 대해 교수-학습함으로써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설정한 고전문학교육의 목표를 바탕으로 고전문학교육의 교수-학습 내용을 설계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인데, 이러한 학문 목적 학습자들은 한국어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일반 학습자들보다 한국문학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³⁵⁾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은 자신의 모국어를 가진 제2언어 학습자들이

35) 연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문학 수업을 선택한 이유를 조사했더니 한국어 공부보다 전공, 문화나 사고방식, 번역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이나 번역은 매우 전문적인 수준의 문학교육에 대한 요구이고, 한국문화나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알고 싶다는 것도 언

다. 이런 제2언어 학습자들의 경우 교재나 수업시간에 접하게 되는 문학 작품이 거의 유일하게 한국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적절한 문학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고전문학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선정의 기준을 마련해야 작품 선택이 용이하며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고전문학교육의 교수요목을 설계하기에 앞서 작품 선정의 기준부터 세워보기로 한다.

2. 고전문학 작품 선정 기준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입증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윤여탁(2007)과 장문정(2008)을 들 수 있다. 윤여탁(2007:79)은 한국어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어 교사들은 대체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어교육에서 고급 한국어 과정뿐만 아니라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부터 한국문학 작품을 교수-학습하여야 하며, 문학교육을 통하여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³⁶⁾ 그리고 장문정(2008:356~357)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절대적으로 많은 학습자들이 문학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³⁷⁾ 이 연구에서는

어 학습 차원을 넘어서는 수준의 교육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인다(황인교·김성숙·박연경, 2004:231~280). 또한 황인교(1998:217)에 의하면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에 대한 복수 응답이 가능한 질문에 문학 수업 학습자 47명 가운데 26명이 재미, 10명이 전공, 9명이 한국문화나 사고방식, 6명이 번역, 5명이 한국말 공부라고 답하고 있다.

36) 그 외에 한국어 교재에 수록할 정전의 선정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이 때 작품 선정의 기준으로는 학습자의 수준이나 흥미 또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면서 한국문화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적합한 문학 갈래로는 현대수필, 현대소설, 현대시 등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37) 이 설문조사는 경희대학교 한국어 프로그램 가운데 10주 정규과정에 수학 중인 고급 단계 학

문학교육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의 생각도 어느 정도 엇볼 수 있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문학 작품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그동안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는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본고에서는 이런 점에서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앞의 III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고전문학교육은 한국인의 삶의 모습과 세계관, 한국의 전통성, 한국어 습득, 문학 이해, 한국어 표현력 다양성 추구하고 일상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학습자들이 대체로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학습자 요구에 맞게 작품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작품을 선정할 때 학습자들의 언어적 수준, 문화적 요소, 문학의 보편성 및 특수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교재 개편 전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한 뒤 작품 선정 기준을 세우고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행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은 다양한 학습 목적과 학습자 요구가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또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IV장의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고전문학을 포함한 문학 작품 선정의 기준에 대한 기준 논의를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작품 선정의 기준을 정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 교재에 수록할 문학 작품 선정 기준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는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조금씩 보이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 작품 선정 기준에 대한

습자(46명)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문학 작품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서 ‘배워야 한다’에 29명(63%)이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를 보면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에도 한국어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으므로 배워야 한다; 문학은 한국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한국어 공부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한국 사람의 생각, 심리를 이해할 수 있다” 등으로 나타났다. ‘배우지 않아도 괜찮다.’에 12명(26%)이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문화는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에서 생활하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너무 어려워서 전공으로 하지 않는 한 배울 필요 없다; 문학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표현이 어려워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사·소설보다는 영화 등의 매체에 더 관심이 많다” 등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로는 주은정(2002), 김예호(2003), 강혜민(2006), 윤여탁(2007), 이숙진(2008), 장문정(2008), 장원기(2010) 등이 있다. 이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여탁(2007:125~129)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여 유학생과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의 선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160명의 응답자 중 ‘보통이다’가 104명, ‘문제가 있다’가 37명으로 나타나 대체로 부정적으로 응답을 하였으며, ‘잘된 편이다’는 13명, ‘기타’ 4명, ‘아주 잘 선정되었다’는 2명으로 나타나 작품의 선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한국어 교재에 수록할 문학 작품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의 난이도 여부’가 63명,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58명, ‘한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는가의 여부’가 33명, ‘문학사적 가치의 여부’가 12명, ‘기타’ 9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에 대한 답은 최근 들어 외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중요한 목표로 하지만, 이 기준보다는 학습자의 수준이나 흥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문학 작품은 외국인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이나 수준에 맞추어 선정하여야 하고, 문학사적 가치 여부보다 흥미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은정(2002:20~23)에서는 한국어교육에 적절한 문학 텍스트를 선정하기 위하여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가르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문학 작품을 텍스트로 활용하는 한국어교육은 매우 의미 있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문학 수업 후 가장 효과적인 학습 분야는 어휘력의 향상이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문학적 감동과 재미, 독해력의 향상, 한국에 대한 이해를 들었다. 하지만 학생과 교사는 모두 문학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수업 진행의 어려움과 적절한 작품의 선택이 어렵다는 점에 부담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문학 수업을 위한 첫 단계는 텍스트로 사용할 적절한 작품을

고르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텍스트의 선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종합하였다.

(21)

-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문학 작품이어야 한다.
-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가능한 한 현대 작품이 좋다.
- 분량이 길지 않은 작품이어야 한다.
-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야 한다.
- 문학적 가치가 풍부한 작품이 좋다.
- 가능한 한 한국인의 모습과 생활을 담은 작품, 즉 한국문학 작품을 텍스트로 한다.

이숙진(2008:14~16)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효과적인 문학교육을 위해서는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실제 수업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작품을 목록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텍스트의 활용은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타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요구에 충실한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면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텍스트의 선정 기준을 다음과 정리하였다.

(22)

- 학습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 수준을 고려한다.
- 한국의 문화 및 한국인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선정한다.
-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주고 학습 동기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 학습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의 작품을 선정한다.
- 한국어 사용 능력을 고려한 적절한 분량이어야 한다.
- 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선정한다.

한편 문학교육이 아닌 고전문학교육으로 범위를 좁혀 작품 선정 기준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고전문학의 하위 범주인 고전소설 작품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 강혜민(2006: 26~27)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23)

- 한국어 중급 수준 이상의 학습자가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를 풍부하게 지닌 작품이어야 한다.
- 작품의 구성언어는 직접 한국어 활용이 가능하도록 일상적인 한국어로 쓰여 있어야 하며 어려운 어휘는 문맥에 의해 추론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학습자가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과 과제 등을 통해 수업 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언어의 통합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작품 감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장원기(2010:41)에서는 문화교육으로서 문학을 통한 한국어교육이라는 목표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으며 작품의 선정에 있어서도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사회·문화 능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작품 선정 기준을 정리하였다.

(24)

- 문학적 가치나 인지도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의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 상황중심의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장면을 포함한 텍스트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 한국의 사회·문화·풍습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인지를 파악하여 선정한다.
- 연습 및 활용이나 과제 수행을 통해 학습자가 언어, 문화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상에서 문학 작품 선정의 기준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다. 위의 의견들을 참고하여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교육을 위한 작품 선정의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5)

-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맞는 작품을 선정하여 그 수준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즉 초급과 중급에서는 분량이 짧고 내용이 쉬운 작품을 선정하여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문화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고급에서는 문학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을 선정하여 문학 능력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한다.
- 학습자의 흥미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고 작품 감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가치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만일 흥미나 동기 유발의 측면과 문학적 가치의 측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급과 중급에서는 흥미나 동기 유발을 우선시하고 고급에서는 문학적 가치를 우선시하도록 한다.
- 한국의 사회·문화·풍습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함으로써 작품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 및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³⁸⁾

38) 장문정(2008:362)에서는 학습자들에게는 ‘문학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교사들에게는 ‘문학 작품 교수 시 중점적인 지도 사항’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7개 항목 중 모두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 ‘한국의 문화’, ‘한국어 표현’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학의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문학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단계별 고전문학 교수요목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고전문학 작품을 분류하여 제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³⁹⁾ 한국고전문학 작품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부적인 단계로 분류하여 제시할 때, 한국어 학습자는 자신의 한국어 능력에 맞는 작품을 접할 기회를 갖게 되고 그 작품에 대한 효율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전문학 작품이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치 있고 유용한 학습 자료로서 충분한 역할⁴⁰⁾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은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문학교육은 뚜렷한 학문적 정체성이 없으며 특히 고전문학교육은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문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과 문학교육 내용을 잘 연계시켜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수요목의 설계가 필요하다(장문정, 2008:347).

39) 장문정(2008:355)에서의 한국어 학습자 요구 조사에서 문학 작품이 ‘약간 어렵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6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별로 어렵지 않다’가 2%에 그쳤다. 그러나 ‘매우 어렵다’는 학습자 또한 28%로 나타나 ‘어렵다’는 반응이 무려 89%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서 학습자들은 아직까지 문학 작품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문학 교수요목 설계 시 학습자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학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제대로 체계를 갖춘 문학교육 수업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수업 설계가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40) 한국문학 교육에 있어서 고전문학의 활용은 적극적 의의를 확보할 충분한 내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여러 논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양민정(2006:101~125)인데 다음과 같이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현대 문화의 제 현상에도 이해가 용이해진다. 한국어에 대한 단순한 문법, 어휘 등의 언어적 구사로 인한 의사소통 능력을 넘어서서 한국문화의 이해 및 다양하고 심도 있는 한국어의 습득과 구사라는 양축을 다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 텍스트의 하나이다. 둘째,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학습의 흥미와 사고력, 학습자 모국 문학과 대비 능력, 나아가 모국의 문화와의 대비 능력 등을 키워줄 수 있는 데에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적 원류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흥미를 유발시키고 현대 문화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데에는 현대문학 텍스트보다는 고전문학 텍스트가 훨씬 효율적이다.

교수요목 설계를 다룬 연구로는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어 요구 분석 및 교수요목 개발을 다룬 김인규(2003), 통합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를 다룬 김정숙(2003), 비즈니스 한국어의 교수요목 설계를 다룬 정명숙(2003) 등이 있다. 이들은 학습자 수준이나 목적에 부합한 교수요목 설계에 대해 논하고 있다. 반면 문학의 중요성이 부각된 문학교육의 측면에서 문학 교수요목 설계를 위한 교수요목 개발에 관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고전문학교육 교수요목 설계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수요목 설계 시 참조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빈도수가 높은 고전문학 텍스트⁴¹⁾와 국어교육과정의 초·중등학교 국어과 교재에 수록된 고전문학 관련 텍스트를 참조하였다. 여기서는 한국어 학습자 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해 국립국어원(2010)에서 발간한 한국어교육 표준 교육과정⁴²⁾의 등급별 총괄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이 기준에 따른 학습 목표를 제시한 뒤 단계별로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수요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주은정(2002), 김예호(2003), 이숙진(2008), 오정미(2008), 장원기(2010), 황효명(2012), 김준형(2012), 양영희(2013) 등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백인자(2004:61~83)에서는 김대행 교수가 논의한 미국의 5C 기준과 구체적 문학 작품을 연관 지어 한국어교육에 어떤 문학 작품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인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미국의 외국어 학습의 국가 표준안에서는 외국어교육에서의 5C를 제안하고 있다. 5C(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Preparing for the 21st C)는 communication(의사소통), cultures(문화), connections(연계), comparison(비교), communities(다문화사회의 참여)이다. 이 5C는 외국어교육이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소를 두루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2) 국립국어원(2010)에서 발간한 표준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 기술을 위한 범주 설정은 교수-학습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언어 지식 및 언어 기술이 포괄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였다. 동시에 문화 요소를 독립 영역으로 두고 언어 학습과 문화 학습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안배하였다. 문화 영역은 문화 상호주의에 입각한 쌍방향 문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 문화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초급 단계의 고전문학 교수요목

가. 초급 단계의 고전문학 학습 목표

본고는 국립국어원(2010)에서 발간한 한국어교육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총괄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초급 단계의 고전문학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총괄목표 기술은 각 등급의 학습이 완료되었을 때 학습자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이며, 총괄목표를 중심으로 등급의 세부 목표와 세부 내용이 기술되었다.

(26) 한국어교육 표준 교육과정 초급 단계 총괄목표(국립국어원, 2010)

- 1급 : 인사하기, 소개하기 등 일상적인 화제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요일, 시간, 장소 등의 기본적인 화제로 구성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구, 절 단위 혹은 짧은 문장 단위의 매우 간단한 문장들을 이해하고 쓸 수 있다. 자신의 생활이 중심이 되는 주변 사물과 장소 등과 관련된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자모의 음가, 한국어의 음절 구조, 한국어 기본 문장의 억양을 원어민 화자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장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 2급 : 슈퍼, 식당 등 일상적인 공공장소에서 자주 접하는 화제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우체국, 은행 등의 공공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들로 구성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뿐만 아니라 친교, 문제 해결 등의 특정 상황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주제와 관련된 짧고 간단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슈퍼, 식당, 은행, 우체국 등의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음운 변화를 이해하여 천천히 발화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27) 초급 단계 고전문학 학습 목표

- 언어기능 교육의 자료로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함으로써 한국고전문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다.
- 문화교육의 자료로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함으로써 일상생활문화에 남아 있는 한

국민의 사상과 정서가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나. 초급 단계의 고전문학 교수요목 및 활용 방안

앞서 일부 논의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은 중급 이 후부터 가능하다는 의견이 꽤 존재한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듯 현행 한국어 교재 중에는 중급 이 후부터 문학 작품을 수록한 것들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교육이나 문화교육의 자료로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에는 초급 단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본고의 생각이다. 백인자(2004) 역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텍스트로서 교수-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면 초급 단계에서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역사적으로 오래 전의 문학을 학습함에 있어서는 같은 문화권 내에서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세계적으로 유사한 것을 발견하여 학습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거나 흥미를 유발시키고 동기 부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백인자, 2004:65~66). 초급 단계에서부터 고전문학 작품을 잘 활용하여 교육한다면 사고와 문화까지 공유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때 학습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게 교수요목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초급 단계의 고전문학 작품은 한국어 학습자가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변형문을 제시하거나 작품 수록 시 난이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고에서 설계한 초급 단계의 고전문학 교수요목은 다음 <표 V-1>과 같다.

<표 V-1> 초급 단계 고전문학 교수요목

순서	장르	작 품	작 가	주제 및 내용
1	전래동화	소금이 나오는 멧돌	-	권선징악
2	전래동화	호랑이와 꽃감	-	교훈
3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	-	교훈
4	전래동화	우산 장수와 짚신 장수	-	긍정적인 사고
5	전래동화	달걀 열두 개로 한 축하	-	정성
6	설화(신화)	설문대할망	-	제주도 소개
7	설화(전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	교훈, 인형극
8	설화(전설)	백두산 장생초	-	신화적 성격
9	설화(민담)	방귀쟁이	-	용서
10	전래동요	까치야 까치야	-	까치와 관련된 여러 나라 전래동요 비교
11	민요	아리랑	-	여러 나라의 민요 비교

초급 단계의 학습자에 대해서는 인식과 문화 차이로 인해 오는 심리 갈등과 문화 거부감을 해소하고, 현재 겪는 문화 충격을 한국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 그러려면 제시된 고전문학 작품을 통해 학습자들이 즐겁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문학 작품에 친숙한 정서를 갖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쉽고 보편적인 작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면에서는 거부감을 줄이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가족, 친구 등에 대한 소재나 사랑, 우정 등 친숙한 감정이 포함된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장르면에서는 초급 단계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과 학습 목표를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장르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전래동화, 설화, 민요 같은 것이다. 이런 장르들은 대부분의 나라에 존재하는데다 민중들의 세계에서 구비전승되어 온 비교적 소박

한 장르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또 초급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제시 방법에 있어서도 세심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많은 문자 내용을 제시하는 것보다 이해하기 쉬운 다채로운 그림을 활용하여 내용을 제시하면 학습자가 어휘와 내용에 지루해하지 않고 보다 재미있고 쉽게 작품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청각 매체나 애니메이션을 이용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전래동화는 남녀노소를 불문하는 작품이고 교훈과 흥미가 있는 하나의 완성된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이다. 전래동화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와 정서를 잘 포함하고 있으며, 전래동화에 나타난 주제, 인물, 배경 등은 다른 장르와 달리 명료하고 간결한 편이다. 따라서 한국 전래동화는 초급 단계에서 학습자들의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고전문학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훌륭한 텍스트이다. 또한 전래동화를 시청각자료로 만든 것들은 언어 구사에 적절한 운율을 갖고 있으므로 강세, 억양 등의 발음 연습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초급에서 민요의 학습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화여대의 한국어 교재 『이화한국어1-2』에 민요 <아리랑>이 실려 있는데 이 민요는 이미 전 세계에 알려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민요로서 외국인들이 가사는 잘 몰라도 흥얼거릴 수는 있다. 아리랑의 노래를 배우면서 한국의 각각 다른 팔도 아리랑에 대해 소개할 수 있으며 음률의 차이를 느끼게 할 수도 있다.

초급 단계의 학습자는 한국어의 수준이 한글 익히는 수준이며 어휘도 약 800개 정도를 알아야 하는 정도이며 기본적인 의사표현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고전문학의 작품 자체보다는 이를 가공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문맥을 이해하고 고전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고전을 가공한 시청각 자료는 많이 있지만 이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8)

- TV동화 행복한 세상, KBS1 2001.4.30 ~ 2012.5.10
- 동화 읽어주는 TV, MBC 2006.1.19 ~ 2006.3.30
- TV로 보는 원작동화, EBS 2011.4.5 ~ 2011.8.23
- 애니메이션 전래동화, 여러 출판사
- 국악포털 아리랑(<http://arirangs.com>)
- 한국전통소리문화(<http://www.koreamusic.org>)
- 국악방송(<http://www.gugakfm.co.kr>)

2) 중급 단계의 고전문학 교수요목

가. 중급 단계의 고전문학 학습 목표

국립국어원(2010)에서 발간한 한국어교육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총괄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중급 단계의 고전문학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총괄목표 기술은 각 등급의 학습이 완료되었을 때 학습자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이다.

(29) 한국어교육 표준 교육과정 중급 단계 총괄목표(국립국어원, 2010)

- 3급 :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별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에 임할 수 있으며, 직업, 사랑, 결혼 등의 비교적 친숙한 사회적 소재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일상적이고 친숙한 소재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개인적이고 친숙한 내용의 글을 읽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단어 경계를 넘어선 단위에서 음운 변동 규칙을 스스로 적용하여 개별 음운은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반영된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나이, 성, 지위 등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특징 등을 이해할 수 있다.
- 4급 : 공적인 맥락과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직장 생활 등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업무나 공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직업, 사랑, 결혼 등의 친숙한 사회적 소재에

대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친숙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빈도수가 높은 관용어, 사자성어, 속담 등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음운 변동을 능숙하게 적용하여 원어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음과 억양을 구사할 수 있다. 공적이고 격식적인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대중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

(30) 중급의 고전문학 학습 목표

- 고전문학 작품 속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한국인의 가치관과 세계관 및 행동 양식을 이해할 수 있다.
- 한국인의 사상과 보편적인 정서를 이해할 수 있다.
- 작품 속에 나타나는 한국문화와 학습자 모국의 문화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나. 중급 단계의 고전문학 교수요목 및 활용 방안

문학 작품을 문어체와 구어체의 두 가지 형식을 제시하여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연습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본인이 느낀 점이나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중급 단계의 학습자 수준에 맞는 한국 문화적·문학적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 및 주제의 문학 작품을 제시하여 활용하면 학습자들이 문화적이나 언어적 측면에서 더 다양하게 한국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중급 단계의 교육 내용에서는 초급 단계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추상적이고 사회적인 소재의 글도 가능하여 보편적이면서도 한국적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효, 우애 등의 사상이나 갈등, 슬픔, 그리움 등 정서적인 작품에 대한 문학교육 내용을 다룰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고에서 설계한 중급 단계의 고전문학 교수요목은 다음 <표 V-2>과 같다.

<표 V-2> 중급 단계 고전문학 교수요목

순서	장르	작 품	작가	주제 및 내용
1	전래동화	효성 다한 호랑이새야	-	효성, 인형극
2	전래동화	금도끼와 은도끼	-	정직
3	전래동화	거울	-	자아
4	설화	검정소와 누렁소	-	여러 가지 생각
5	설화	콩쥐 팥쥐	-	권선징악
6	설화	사이좋은 형제	-	교훈
7	설화	구두쇠 이야기	-	교훈
8	설화	혹부리영감 이야기	-	정직
9	설화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	주체적 의지, 사랑
10	설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	우애
11	민요	새야 파랑새야	-	나라 사랑
12	신화	단군신화	-	여러 나라 건국신화 비교 학습
13	고시조	태산이 높다 하되	양사언	자기 수양
14	고시조	이고 진 저 늙은이	정철	노인 공경
15	고려속요	사모곡	미상	효심
16	가사	농가월령가	-	여러 나라 세시풍속과 비교 학습
17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	여러 나라 사랑에 대한 인식 비교
18	고소설	토끼전	-	충, 허욕 경계, 위기 극복 지혜
19	고소설	흥부전	-	형제간의 우애

한국적이면서 인류사적 보편성을 가진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고전문학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가족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족구성원 상호 간의 사랑과 믿음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애로운 사랑을 무한

정 베풀어야 하고 이 사랑을 받고 자란 자식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한다. 또한 형제자매 간에도 혈육의 정을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 우애롭게 지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당위적 내용을 윤리적인 언설만으로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부전>은 한국어 교재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고전문학 작품이며 작품의 구성은 판소리계 소설과 같이 소설적인 구성보다는 희곡적으로 재구성한 경우가 많다. 판소리는 사람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줄 뿐만 아니라 교훈을 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홍부전>은 평민층의 삶의 체험과 소망의식이 투영된 노래 형식인 판소리가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이다. 인물 유형뿐만 아니라 한국 고유의 관습과 전통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 작품을 통하여 한국의 사회와 문화 풍습을 경험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 시 학습자들의 모국 문화와 ‘같고 다름’을 비교하려는 특성을 이용하여 모국의 이와 비슷한 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것으로 상호 문화 차이를 줄이고 문학 작품 학습에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편 중급 단계에서 고전문학의 한 장르인 신화를 활용할 수 있다. 신화는 태초에 일어난 사건을 기술하며 자연 현상과 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서사이다. 신화는 초월적 정신세계에서 이루어진 신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존재와 삶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문학이다. 특히 한국의 신화는 신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관심보다, 신이 인간으로 세상에 와서 인간을 위해 행한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 신화를 인간학적으로 살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인간정신의 고양과 공동체의 중요성 인식으로 집약된다(김수중, 2013:29).

<단군신화>를 비롯한 건국신화를 활용하여 한국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서 학습자 모국의 건국신화와 비교 대조로 학습시키면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중국의 <반고신화>는 반고가 알 속에서 태어나 천지가 개벽한 뒤 반고가 죽어서 왼쪽 눈은 태양이 되고, 오른쪽 눈은 달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국의 신화는 인간의 삶 속에 신이 내려온 뒤 하늘과 태양,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고전문학 작품의 비교 학습으로 학습자 모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표현 능력과 문학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중급 단계에서 시조⁴³⁾ 장르를 활용하는 것도 적합하다고 본다. 시조는 한국문학 장르 중 제일 오랜 시간에 걸쳐 살아남아 오늘까지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이어왔으며, 한국인들에 의해 가장 많이 향유되어 온 장르다.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계층에 의해 향유되며 그 맥을 이어온 관계로 시조 속에는 한국인의 가치관과 정서가 잘 담겨 있기에 문화와 문학의 학습 자료로 적합하다. 중급 단계의 학습자는 대표적인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시조를 활용하여 문화교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시조를 접해봄으로써 시조의 대략적인 모양(보통 3장 6구 12음보의 형식에 총 45자 내외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며 효 사상, 노인공경 등 교훈도 받을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어른과 젊은이의 구분이 엄격하고, 젊은이는 어른들께 공경을 다해야 한다는 경로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그 거주 목적에 관계없이 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교육을 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 지하철에 노인이 나타난 상황을 설정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정철의 <훈민가> 같은 작품을 보면 바로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 놓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시조로 읊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교육 자료와 함께 고전문학 작품을 병행하여 사용하면 더욱 좋은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43) 홍혜준(2004:529~554)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화교육에서의 시조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시조는 체험의 소산이므로 외국인 학습자는 시조교육을 통해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 둘째, 시조에는 작가의 깊은 사상과 체험, 가치관이 용해되어 있으므로 시조교육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는 문학적 체험을 풍부히 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심화할 수 있다. 셋째, 시조는 한국적 소재를 사용하여 다양한 정서를 자유자재로 표현한 장르이므로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말의 섬세하고 미묘한 느낌까지 배우고, 문학적인 언어 감수성을 높이며 언어사용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넷째, 시조는 문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음악적 요소를 지닌 장르이므로 시조창과 리듬감 있는 시조 낭송을 연습하게 함으로써 말하기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으로 보인다.

또한 <태산이 높다하되>라는 시조의 학습을 통하여 비유법을 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훈도 받을 수 있다. 즉 일이 어렵다고만 하며 노력하지 않고 태산이 높다고만 하는 것을 배울 것이 아니라 한국어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꾸준한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한국사람 못지않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 문학의 연구자도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도 있다. 시조 교육 시 영상매체를 이용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학습자들은 어려서부터 다양한 미디어를 접해왔다. 따라서 이런 학습자들에게는 문자 매체보다 영상매체를 활용하면 학습자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⁴⁴⁾

얼마 전 한국의 김장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확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로써 한국은 총 16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런 문화유산이나 설, 추석 등의 세시풍속은 한국의 고유한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들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한국인과 더불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이런 문화유산이나 세시풍속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세시풍속 중에서 설이나 추석처럼 지금도 중요한 명절로 인식되고 있는 것들이나 김장문화처럼 한국인의 현실 생활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교육을 통해 이런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조선후기에 창작된 풍속가사인 <농가월령가>에는 월별 세시풍속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작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의 고유문화를 이해시키는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앞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모형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4) 판소리나 시조(가곡)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려주며 들려주면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중급 교수-학습 방안 1 : <이고 진 저 늙은이>

<이고 진 저 늙은이>

- 정 철

원 문:

이고 진 더 늘그니 짐 프러 나를 주오
 나는 점었꺼니 돌히라 무거울가
 늘거도 설웨라 커든 짐을 조차 지실가

현대문:

이고 진 저 늙은이 짐을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서러울 텐데 짐까지 지실까

해 석:

머리에 이고 등에 짐을 진 저 늙은이 무거운 짐을 풀어 나에게 주시오. 나는 아직 젊었으므로 돌이라도 무겁지 않습니다. 인생이 늙은 것만도 서러운 일인데 무거운 짐까지 지고 가시니 얼마나 서럽겠는가?

작가소개 - 정철 -

호는 송강(松江). 조선 선조 때의 정치가이자 시인.

시조와 가사에 능하여 시조 80여 수와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성산별곡> 등의 가사가 전한다.

주 제	<이고 진 저 늙은이> 훈민가 제16수	시 간	50분
학습 목표	1. 본문을 유창하게 읽을 수 있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새로운 어휘와 문법을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다. 3. 시조의 학습을 통하여 한국인의 정신문화가 잘 스며든 전통적인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다.		

교육 내용		<이고 진 저 늙은이>의 학습을 통하여 한국의 경로사상을 학습한다.		
준비물		컴퓨터, 프로젝터, 스크린, 어휘카드, 문법카드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교사	학생	
도입 (10)	출석 확인	<input type="checkbox"/> 인사 및 출석 확인	인사	출석부
	복습	<input type="checkbox"/>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	교사의 질문에 대답한다.	
	학습 목표 제시	<input type="checkbox"/> 학습 동기 유발 T: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S: 60대/70대요. T: 여러분은 자주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갑니까? S: 네/아니요. T: 우리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답한다.	컴퓨터 프로젝터 스크린
		<input type="checkbox"/> 그림 보고 표현하기 T: 한 노인이 짚을 지고 가네요. 만약 우리가 이 노인을 봤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S: 짚을 저한테 주세요./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T: 모두 착한 학생들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선시대 송강 정철이 지은 시조 <훈민가> 중 제16수 <이고 진 저 늙은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답한다.	
	<input type="checkbox"/>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스키마를 활성화 시킨다. <input type="checkbox"/> 학습 목표 소개하기	학습 목표 인지		
전개		<input type="checkbox"/> <이고 진 저 늙은이>		

(35)	<p>1. 원문 제시 ▷ 원문 읽어 보기</p> <p>2. 현대문 제시 ▷ 읽어 보고 원문과 대조해 보기 ▷ 글쓴이 소개</p> <p>3. 시조 분석 ▷ 시적 화자 파악하기</p> <p>T: 시 속에 말하고 있는 사람의 누구일까요? S: 뒤에 있는 젊은 사람이에요. T: 어떻게 젊은 사람인줄 알았어요? S: ‘젊었거니’에서 알 수 있었어요. ▷ 시적 대상 파악하기</p> <p>T: 시적 대상은 누구일까요? S: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T: 젊은이인가요? S: 아니요. 늙은 사람이에요. T: 다르게 표현할 수 없을까요? S: ‘늙은이’</p> <p>T: 시조 속의 어느 표현에서 늙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S: ‘늙거니’에서 알 수 있었어요. T: 그림 속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S: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힘들게 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 짐을 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한 느낌과 파악하기</p> <p>T: 시적 화자는 시적 대상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는가요? S: 도와 드리고 싶어 해요. 불쌍하게 여겨요. 연민의 느낌이에요.</p>	<p>본문 내용 읽기</p> <p>교사의 질문에 자유롭게 대답한다.</p> <p>어휘와 문법을 이해한다.</p>	<p>컴퓨터 프젱터 스크린</p> <p>어휘 카드</p> <p>컴퓨터 프젱터 스크린</p> <p>어휘 카드</p> <p>문법 카드</p>
------	--	--	--

		<p>▷ 주제 파악하기</p> <p>T: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은 무엇일까요?</p> <p>S: 노인을 돕자. 노인을 공경하자.</p> <p>T: 그래요. 누구나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 늙을 때가 있지요. 늙은것만으로도 불쌍할 텐데 또 저렇게 무거운 짐까지 이고 지고 너무 불쌍하지요. 비록 우리가 그 노인네들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인들을 도와드리고 보살펴드리면 그들은 얼마나 고마워하시고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까요?</p> <p>4. 본문을 여러 번 읽게 한다.</p> <p>5. 본문을 다시 읽어 보고 해석문을 쓰도록 지도한다.</p> <p><input type="checkbox"/> 토론하기</p> <p>▷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에 대해 평가해 보고 오늘 날의 경로사상에 대해 토론하기</p> <p>▷ 토론한 내용 발표하기</p>	교사의 질문에 자유롭게 대답한다.	
	정리	<p><input type="checkbox"/> 본 차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p> <p>▷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p> <p>▷ 본문의 어휘와 문법을 제시한다.</p> <p>▷ <이고 진 저 늙은이>시조를 읊게 한다.</p>	교사의 질문에 대답한다. 시조 읊기	컴퓨터 프록젝터 스크린
정리 (5)	과제 제시 및 수업 예고	<p><input type="checkbox"/> 오늘의 본문 내용을 읽어보고 ‘노인을 공경하자’에 대하여 10가지 적어오는 과제를 제시한다. 다음 시간에는 고소설 <춘향전>을 공부할 것입니다.</p> <p><input type="checkbox"/> 인사</p>	과제 숙지한다.	

중급 교수-학습 방안 2 : <농가월령가>

<농가월령가> 10월령 일부분문

본 문

시월은 맹둥이라 입동 소설 절기로다 나뭇잎 떨어지고 고니 소리 높이 난다
 든거라 아이들아 농공을 필하도다 남은 일 생각하여 집안 일 마저 하세
 무우 배추 캐어 들어 김장을 하오리라 앞 냇물에 정히 씻어 염담을 맞게 하소
 고추 마늘 생강 파에 젓국지 장아찌라 독 곁에 증두리요 바탕이 향아리라
 양지에 가가 짓고 짚에 까 싶이 묻고 박이무우 알암말도 얼잠게 간수하소

해 석

시월은 초겨울이며 눈이 내리는 계절이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새 소리 높이 난다. 아이들아 들어라. 농사일이 끝났구나. 남은 일을 생각하고 집안일을 먼저 하자. 무, 배추, 뽑아 와서 김장을 해라. 앞 강물에 깨끗이 씻어 소금을 넣어라. 고추, 마늘, 생강, 파를 넣어 김치를 만들어라. 향아리는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집을 짓고 짚에 싸서 깊이 묻고 무를 잘 가져와 보관하자.

주 제	<농가월령가> 10월령-김장부분		시 간	50분
학습 목표	1. 본문을 유창하게 읽을 수 있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새로운 어휘와 문법을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다. 3. 한국의 세시풍습을 이해할 수 있다.			
교육 내용	<농가월령가>의 학습을 통하여 한국의 김장문화를 학습한다.			
준 비 물	컴퓨터, 프로젝터, 스크린, DVD, 어휘카드, 문법카드			
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교 사	학 생	
도입 (5)	출석 확인	<input type="checkbox"/> 인사 및 출석 확인	인사	출석부

	복습	□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	교 사 의 질 문 에 대답한다.	
	학습 목표 제시	<input type="checkbox"/> 학습 동기 유발 ▷ 한국 김치의 종류를 소개한다.(DVD) T: 여러분은 김치를 좋아합니까? S: 네/아니요. T: 김치가 싫어요? S: 시어서 상한 것 같아요. T: 김치가 신 것은 김치가 상한 것이 아니라 김치가 익었다고 하지요. 김치가 익으면 유산균이 많아서 건강에 좋습니다. <input type="checkbox"/>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내용을 추측하게 한다. ▷ 학습 목표를 소개한다.	동영상 시청 교 사 의 질 문 에 대답한다. 학습 목표 인지	컴 퓨 터 프 로 쥬 터 스크린
전개 (40)		<input type="checkbox"/> 한국의 김장문화 소개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등재 언론 보도 자료 영상을 시청한다. T: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은 김치겠지요. 여러분 나라의 대표 음식을 무엇입니까? S: 물만두/ 초밥/ 스테이크 톱얌/ 아도보/ 고이쿠온 ▷ 봉사단체에서 김치를 만들어 이웃돕기 김치를 전달하는 장면의 영상을 시청한다. T: 한국의 여러 봉사단체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겨울을 잘 넘기기 위해 김치를 만들어 전달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참석해 보겠	동영상 시청 교 사 의 질 문 에 자 유 롭 게 대답한다. 동영상 시청	컴 퓨 터 프 로 쥬 터 스크린 컴 퓨 터 프 로 쥬 터 스크린

	<p>어요? S: 네/좋아요. T: 한국의 김장문화는 예로부터 이어온 전통문화입니다. 조선후기에 풍속가사인 <농가월령가>에는 월별로 세시풍속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김장은 몇 월 달에 하는지 압니까? S: 10월 달에요/11월 달이요. T: 보통 12월 전 10~11월 달에 하지요. <농가월령가>는 총 12월령까지 있는데 어느 월령가에 있을까요? S: 10월이요/11월이요. T: 정답은 10월령입니다. 10월령 내용 볼까요? S: 네.</p> <p><input type="checkbox"/> <농가월령가> 10월령 ▷ 본문 내용 읽는다. ▷ 본문 내용 해석을 통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 어휘카드를 사용하여 본문의 새로운 어휘를 설명한다. ▷ 본문에 제시된 문법을 문법카드를 사용하여 설명한다.</p> <p><input type="checkbox"/> 김치 만드는 방법 소개 T: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S: 알고 싶어요. ▷ 김치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시청한다. ▷ 김치 만드는 방법을 읽힌다.</p>	<p>교 사 의 질 문 에 자 유 록 게 대 답 한 다.</p> <p>본문 읽기</p> <p>본문 내 용과 어 휘 / 문 법 을 이해 한다.</p> <p>동영상 시청</p>	<p>컴퓨터 CD</p> <p>어휘 카드</p> <p>문법 카드</p> <p>컴퓨터 프로젝 터 스크린</p>
--	---	--	--

		<input type="checkbox"/> 김치 맛보기(<김치송> 노래 들려주기) T: 여러분, 전라도 김치가 어떤 맛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S: 궁금해요. T: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맛있는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T: 맛있어요? S: 맵지만 맛있어요.	김치 맛보기	컴퓨터 CD
정리 (5)	정리	<input type="checkbox"/> 본 차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 본문의 어휘와 문법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 김치 만드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한다.	교사의 질문에 대답한다.	컴퓨터 프로젝터 스크린
	과제 제시 및 수업 예고	<input type="checkbox"/> 오늘의 본문 내용을 읽어보고 부모 사랑에 대하여 10가지 적어오는 과제를 제시한다. 다음 시간에는 10월령은 남은 부분을 공부할 것입니다. <input type="checkbox"/> 인사	과제 숙지한다.	

3) 고급 단계의 고전문학 교수요목

가. 고급 단계의 고전문학 학습 목표

국립국어원(2010)에서 발간한 한국어교육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총괄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고급 단계의 고전문학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총괄목표 기술은 각 등급의 학습이 완료되었을 때 학습자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이다.

(31) 한국어교육 표준 교육과정 고급 단계 총괄목표(국립국어원, 2010)

- 5급 :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적 소재를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사자성어, 속담, 시사용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문법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하고 비교적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역양에 나타난 의미 차이를 파악하여 발화 상황에 맞게 어조를 바꾸어 말할 수 있다. 한국문화 속에 반영된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문화와 자국의 문화를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 6급 : 사회적, 추상적 주제를 다루는 의사소통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문 분야나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 소재들로 이루어진 글이나 발표, 토론, 대담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예시, 비유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폭넓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으며, 어려운 사자성어, 속담, 사회적 주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방언을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문법을 맥락과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성취문화, 제도문화,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32) 고급의 고전문학 학습 목표

- 고전문학 작품에 대해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다.
-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한국 고전문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 고전문학에 대한 비판과 분석을 할 수 있으며 한국인들의 고유한 정서를 이해하고 문학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다.
- 한국 고전문학 작품 속의 한국문화와 학습자 모국의 문화를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상호문화적인 이해를 통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다.

나. 고급 단계의 고전문학 교수요목 및 활용 방안

한국어 학습자들은 문학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학문 목적 한국

어 학습자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들은 깊이 있는 한국문화를 알기 위하여 혹은 깊이 있는 소통⁴⁵⁾을 위하여 더더욱 한국 고전문학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급 단계에서는 한국과 학습자 모국의 문화를 비교 대조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게 문화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따라서 고급 단계에서는 주로 한국문화와 학습자 모국의 문화와의 비교와 대조의 활동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중급 단계에서 어느 정도 갖추어진다고 보고 또한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급 단계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심임을 알 수 있다. 아주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언어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원어민 화자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제대로 된 문학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학교육의 일환으로서 본질적인 고전문학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이 단계의 학습 목표로 설정하였다.

문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과 인간의 삶, 그리고 인간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 따라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문학교육에서 문체 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문학교육에서 문체 삼는 것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치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현재의 사회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 어떤 성격의 사회로 규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문학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에 맞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고에서 설계한 고급 단계의 고전문학 교수요목은 다음 <표 V-3>와 같다.

45) 일차적인 의사소통을 벗어나 대화가 깊어지면 비유와 상징 등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이런 상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성숙된 고전문학 작품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다.

<표 V-3> 고급 단계 고전문학 교수요목

순서	장르	작 품	작 가	주제 및 내용
1	신화	수로왕신화	-	다문화주의
2	설화(전기)	조신	-	인생무상
3	고시조	도산십이곡	이황	학문
4	고시조	오우가	윤선도	덕
5	고시조	십년을 경영하여	송순	안빈낙도 추구
6	고시조	사설시조	-	욕망과 금기
7	가사	노처녀가	-	성, 사회적 약자
8	가사	일동장유가	김인겸	문화교류
9	가사	연행가	홍순학	문화교류
10	고소설	이생규장전	김시습	사랑, 비현실 또는 초현실의 의미
11	고소설	홍길동전	허균	욕구와 좌절, 이상향
12	고소설	최척전	조위한	인간에, 국제적 연대
13	고소설	구운몽	김만중	삶의 지향
14	고소설	허생전	박지원	경제관념
15	고소설	춘향전	-	사랑, 인간 해방
16	고소설	심청전	-	효, 윤리와 양심

고급 단계에서는 초급과 중급에 비해 보다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여 짧은 작품은 작품 전문을 인용하고 긴 작품도 많은 분량을 인용하여 학습자에게 문학 작품 설명이나 저자의 생각을 말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문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이 단계의 학습자들에게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게 함으로써 한국 사회를 보다 깊이 이해하게 한다. 또한 한국인과 제2언어 학습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를 통해 그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를 이해하도록 한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경제와 기계 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인간성 상실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사회 변화의 속도가 개인이 정상적으로 쫓아갈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생존 경쟁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힘겹게 그 속도를 겨우 쫓아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 내부에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편 가르기와 상대에 대한 폄하가 횡행하고 있다. 나아가 심지어는 생존을 위해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상황에 까지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한병철, 2012).⁴⁶⁾

한편 외국인의 한국 사회 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이제 한국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런데 다문화사회 진입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단일민족이고 한국이 단일민족국가라는 인식이 강한 상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낯설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경우 강한 민족주의적 속성을 띠는 한국인들의 숲에서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한국사회의 병리현상과 다문화사회에 따른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문학적 고민과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고전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고전 중에는 개인의 욕망보다는 공동체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민족의 차원에 국한되기보다는 인류애적 관점에서 연대를 도모하는 것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문학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중급에서 소개한 한국의 대표적 신화인 <단군신화>를 고급 단계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한국인들은 <단군신화>를 한국의 민족 기원신화로만 이해해왔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 신시를 열고 그 후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는데, 이 단군이 고조선을

46) 한병철은 이런 현대사회의 특징을 피로사회라는 용어로 규정화하고 있다.

세웠으며 이 고조선이 한국민족이 세운 최초의 나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군신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믿음으로 <단군신화>는 한국 사회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지금 <단군신화>를 지나치게 민족기원신화로서의 성격만 부각하여 이해할 경우 사회통합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단군신화>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단군신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상 <단군신화>에는 민족주의적 속성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단군신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것은 오히려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였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단군신화>에는 이주족인 환웅과 토착부족인 웅녀가 혼인의 형태로 화합하는 양상이 그려지고 있다. 비단 <단군신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화에는 이런 양상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수로신화>에서 수로왕은 아유타국의 공주인 허황옥을 부인으로 맞이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신화를 통해 우리는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⁷⁾

한국을 대표하는 고전으로 알려진 <춘향전>의 경우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전통적인 가치에 국한하여 그리고 있지는 않다. 겉으로는 이도령을 향한 춘향의 정절을 강조한 듯 보이지만 실상 <춘향전>에서 본질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신분을 초월하여 한 인간으로서 정당한 사람을 나누며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춘향전>은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춘향의 욕망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춘향의 인간적 소망을 그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도령이 서서히 변모해가는 모습을 그린 점이라 할 수 있다. 초반의 이도령은 그저 철없는 양반 자제에 불과하였지만 사건이 전개되어 갈수록 이도령은 춘향에 대한 사랑에 점점 진정성을 더하게 되는 인물로, 또 당대 민중들이 바라던 바람직한 관리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게 된

47) 김수중(2013)은 한국의 신화에 내포된 여러 가지 속성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다문화 포용주의(Multiculturalism)를 들고 있다.

다.⁴⁸⁾ 이런 <춘향전>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를 방해하는 현실적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 작품 속에서 학습자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3대 명절의 하나인 단오절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단오절을 일 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 즉 좋은 날이라고 여기며, 잡신이 많다고 하여 이 날에 붉은 부적을 문 위에 붙이는 등이 있었으며 잡귀 악신을 쫓는 행사가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한국문화의 특징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단오절의 유래와 풍습과도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때 두 나라의 단오절에 대한 비교 교수-학습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춘향전>과 비슷하게 신분적 차이가 존재하는 남녀 간의 사랑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국내 민중들의 연대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 있다. 17세기에 창작된 조위한(1567~1649)의 <최척전>이 바로 그것이다. <최척전>은 부부로 맺어진 최척과 옥영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재회를 그린 작품인데, 임진왜란이라는 동아시아 전란으로 인해 이별하게 된 최척과 옥영이 후에 재회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명나라 사람 여유문, 주우, 두홍과 일본인 돈우, 조선 토병 출신의 노호 등 여러 동아시아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작품은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의 연대가, 전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임”(김현양, 2006)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최척전>과 같은 작품을 다문화사회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에 매우 유익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48) 최근 한국에서는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영화의 핵심 내용은 속물적 근성의 세무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런 영화와 연계하여 인생에서 깨달음과 그 이후의 성장의 문제를 토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전소설 중에는 경우에 따라 중급과 고급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한 작품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심청전>을 들 수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심청전>은 세 가지 방향에서 문학 텍스트로 쓰일 수 있다. 첫째, <심청전>에서의 풍부한 대화 상황은 의사소통 교육에 유용하다. 둘째, <심청전>의 중요한 장면들은 사회문화 교육에 유용하다. 셋째, <심청전>은 당위적 권위를 지닌 사회 제도와 개인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문학교육에 유용하다(이정원, 2013:21). 결국 <심청전>은 의사소통 교육, 사회문화 교육, 문학교육에 모두 유용한 고전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중급 단계에서 의사소통 교육과 사회문화 교육으로 활용하고, 고급 단계에서는 문학교육으로 활용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고 하겠다.

한편 <심청전>의 경우에는 학습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다. <심청전>을 학습하기 전에 먼저 학생들에게 모국어로 된 영화를 감상하게 하든가 혹은 한국의 유니버설발레단이 공연하는 발레 <심청>을 감상하게 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이끌 수 있다. 본문을 학습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윤이상이가 작곡한 독일어 오페라 <심청>의 감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심청전>은 학생들의 언어 수준에 따라 다양한 개작본이 가능하기에 중급과 고급에서 모두 가능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고전 작품은 문학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여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축제와 관광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춘향제는 전라북도 남원에서, 심청축제는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열리고 있다. 유학생들이 <춘향전>과 <심청전>에 대한 교실 내에서 학습한 후 교실 외 문화체험 학습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교실 밖으로의 연장 학습은 학생들이 고전문학의 학습과정에서 어려워했고 이해가 덜된 부분을 문화체험의 학습으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할 수 있고 문화도 함께 체험할 수 있어서 학습에 더 흥미를 가질 것이다.

이제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한 작품을 선택하여 교수 학습 모형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고급 교수-학습 방안 : <구운몽>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	
차시	주요 내용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만중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 <구운몽>의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다. • <구운몽>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획득할 수 있다.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구운몽>과 자기 나라의 유사한 작품을 비교 · 대조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해낼 수 있다.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 배경과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다양한 관점에서 <구운몽>을 이해하고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주 제		구운몽	차시	1/3차시
학습 목표		1. 김만중의 삶을 이해한다. 2. <구운몽>의 줄거리를 이해한다. 3. <구운몽>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획득할 수 있다.		
교육 내용		<구운몽>의 작가와 소설의 줄거리를 학습한다.		
준 비 물		컴퓨터, 프로젝터, 스크린, 유인물		
단 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교 사	학 생	
도입 (10)	출석 확인	<input type="checkbox"/> 인사 및 출석 확인한다.	인사	출석부
	복습	<input type="checkbox"/>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하여 지명하여 물어 본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에 대하여 교사의 질문에 대답한다.	

	<p>학습 목표 제시</p>	<p>□ 학습 동기 유발</p> <p>▷ ‘꿈과 현실’에 대하여 설명하게 한다.</p> <p>▷ <구운몽> 제목 보고 예상되는 이야기를 하게 한다.</p> <p>□ 학습 목표 제시</p> <p>▷ 학습 내용을 추측하게 한다.</p> <p>▷ 학습 목표를 소개하고 학습 방법을 안내한다.</p>	<p>학습자 자신의 삶의 경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꿈과 현실’에 대해 발표한다.</p> <p>제목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표한다.</p> <p>학습 목표 인지</p>	<p>컴퓨터 프로젝터 스크린</p>
<p>전개 (35)</p>		<p>□ 작가 김만중의 삶을 이해한다.</p> <p>▷ 작가의 생애에 대하여 설명한다.</p> <p>▷ 작가의 생애에 대하여 학습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한다.</p> <p>▷ 학생들의 발표를 토대로 작가의 생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충 설명한다.</p> <p>□ <구운몽>의 줄거리를 이해한다. (영상자료 감상)</p>	<p>학생은 작가의 생애에 대하여 자신의 관점을 발표한다.</p> <p><구운몽> 전체 줄거리 영상을 감상한다.</p>	<p>컴퓨터 프로젝터 스크린</p>

		<p>▷ 새로운 어휘를 학습한다.</p> <p>▷ 각 단락의 주제에 밑줄을 치면서 큰 소리로 본문을 읽게 한다.</p> <p>▷ <구운몽>의 줄거리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게 한다.</p> <p>▷ <구운몽>의 줄거리 내용을 순서대로 다시 배열하게 한다.</p> <p>▷ <구운몽>의 줄거리를 요약 정리한다.</p> <p>□ <구운몽>과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을 비교·대조하는 학습을 한다.</p> <p>▷ 헛된 욕망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p> <p>▷ 그룹별로 자신의 욕구나 욕망에 대한 경험을 자유롭게 토론하게 한다. 토론이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새로운 어휘를 이해한다. 본문을 읽는다.</p> <p><구운몽> 줄거리에 관하여 진지하게 토론한다. 순서대로 배열한다.</p> <p><구운몽>의 줄거리를 이해한다.</p> <p>자신의 헛된 욕구나 욕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한다.</p> <p>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한다.</p>	<p>컴퓨터 프로젝터 스크린</p> <p>유인물</p> <p>컴퓨터 프로젝터 스크린</p>
--	--	--	--	--

		▷ 살면서 느낀 경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게 한다.(학습자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헛된 욕망에 대한 깨달음을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느낀 경험에 대해 요약 발표한다.	
정리 (5)	정리	□ <구운몽>의 줄거리와 김만중의 삶에 대하여 질문하며 정리한다.	교사의 질문에 대답한다.	
	과제 제시 및 수업 예고	□ 꿈의 상징적 의미를 정리해 오고 꿈과 우리 현실의 삶에 대하여 생각해 오게 한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 <구운몽> 작품을 학습할 것이다. □ 수업을 마치고 인사한다.	과제를 숙지한다. 인사를 한다.	

이상으로 한국 고전문학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교수요목을 설계해 보았다. 학습자 요인에 맞는 적절한 작품 선정은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교사가 좋은 교재로 교수를 한다고 해도 학습자들이 반응을 하지 않고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교육효과는 떨어질 것이다. 현재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은 대학 입학조건이나 졸업조건으로 해당 급수의 한국어 능력시험 자격이 요구된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일상생활과 학업생활에 문제없는 의사소통을 넘어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하려면 한국의 문화가 담긴 문학 작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에 한국의 전통 및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이 잘 담긴 고전문학 작품과 한국

어 능력시험 평가를 연관 짓는다면 고전문학교육이 더 효과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학습자들의 만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VI. 결 론

이상으로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고전문학교육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한류 열풍으로 그동안 한국어교육도 발전을 거듭하여 상당한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교육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이를 배우는 학생의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런 양적 성장만큼 교수-학습의 내용이 충실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본고에서는 한국어교육 중에서 고전문학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한국어교육과 고전문학교육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한국어교육의 개념, 범주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등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들은 하나의 완전한 모국어를 습득한 후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와서 상당 기간을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말하는 한국어교육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교육의 범주에 대해서는 언어기능 영역, 문법 영역, 문화 영역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중 문화 영역은 일반문화 영역과 문학 영역의 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문학 영역의 일부로서 고전문학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문화교육과 고전문학교육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것이다.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언어문화적 관점이든 인류학적·문화학적 관점이든 문화간 의사소통 접근법을 활용한 문화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간 의사소통 접근법을 활용한 문화교육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문학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문화교육의 적절한 텍스트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학 작품이다. 문학 작품 중에서도 문화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텍스트가 바로 고전문학 작품이다. 고전문학의 모티브들은 전통적인 문화이며, 현재 한국인들의 보편적인 문화까지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무조건적인 동화를 위한 차원이 아니라 이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좀 더 높은 보편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로 고전문학 속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문화적 요소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들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간 의사소통 교육을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문화교육의 적절한 텍스트가 고전문학 작품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유학과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에 이주한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을 활용한 교육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이들이 한국어교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습자들이 고전문학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을 활용한 교육이 가장 높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성 확인’이었고, ‘한국인의 삶의 모습과 세계관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 다음이었으며, 이어서 ‘표현력에서 언어적 다양성 추구’, ‘한국어 습득에 도움’, ‘일상 언어 이해에 도움’, ‘한국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 순으로 도움이 잘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을 활용한 교육이 지금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어 교재 개발에 있어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에 유학과 어학연수를 온 이들이 자국에 돌아가 선진 교육과 한국문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전통성 확인에 고전작품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 유형별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한 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그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모든 부분에서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한 조사 대상자들이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한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유학생들을 위한 고전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전공에 활용될 수 있는 고전문학 작품을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어교육에서 유사 전공 유학생 집단에 맞춤형 고전문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자의 요구 조사를 통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이 고전문학교육을 필요하고 있고 또한 고전문학교육이 한국어 학습과 일상생활 등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들이 고전문학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한국어 교재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현행 한국어 교재들은 학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IV장에서 현행 대학 교육기관용 한국어 교재를 분석해 보았다.

IV장에서는 사용 빈도가 높은 5개 대학 기관용 한국어 주교재에 수록된 고전문학 작품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우선 장르 선택의 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교재들이 얼마나 많은 장르들을 선택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고려대학교가 총 14개 장르 중 3개, 서강대학교가 5개, 서울대학교가 9개, 연세대학교가 4개, 이화여자대학교가 11개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서울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많다고 할 수 없는 18개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들 작품이 9개 장르로 다양화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개별 교재 차원을 초월하여 전체를 통합한 상태에서 어떤 장르가 얼마나 선호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상위 1~3위가 현대시, 현대수필, 현

대소설로서 현대문학이 고전문학에 비해 훨씬 많이 수록되고 있는 것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르 분포에 있어서도 고전문학의 경우는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재 편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어 교재에 있는 고전문학 작품 수록은 현대문학 작품과 달리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4급에서 갑자기 증가함으로써 언어교육에서 고전 작품을 활용한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고전문학 작품 역시 현대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칙성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현행 한국어 교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현행 한국어 교재들은 언어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문학이나 문화 관련 글을 수록한 빈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현재보다 문학 관련 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학을 활용한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언어교육과 분리된 독자적인 문학교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많은 한국어 교재가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학습자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재 개발과 그들을 위한 심화 학습용 교재 혹은 부교재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변화를 교재에 즉각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교재 출간 후 현장 사용 빈도와 교수-학습 과정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이를 빠른 시간 내에 교재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교수용 지침서가 필요하다. 교수용 지침서가 없으므로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교재의 활용도도 떨어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한국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용 지침서가 절실히 필요하다.

다섯째, 국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 번역문이 비교적 많이 제시되어 있다. 학습자들이 모국어로 번역된 문장에 의지하고 거기에 치우쳐 학습하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 향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번

역문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 나라의 문학 작품을 일정 비율 수록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한국어 학습능력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장에서는 앞장에서의 학습자들의 요구 조사 및 5개 대학의 한국어 주교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선 한국어교육에서의 고전문학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둘째, 한국고전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다. 셋째, 한국고전문학의 실체와 속성에 대해 교수-학습함으로써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위에서 설정한 고전문학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작품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세워보았다. 첫째,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맞는 작품을 선정하여 그 수준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즉 초급과 중급에서는 분량이 짧고 내용이 쉬운 작품을 선정하여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문화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고급에서는 문학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을 선정하여 문학 능력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한다. 둘째, 학습자의 흥미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고 작품 감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가치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만일 흥미나 동기 유발의 측면과 문학적 가치의 측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급과 중급에서는 흥미나 동기 유발을 우선시하고 고급에서는 문학적 가치를 우선시하도록 한다. 셋째, 한국의 사회·문화·풍습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함으로써 작품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 및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정한 고전문학교육의 목표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 수준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단계별 고전문학교육의 교수요목을 설계한 후 구체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승혜 외(2010), 『한국문화교육론』,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형설출판사.
- 교육부(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 I』.
- 김대행(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동욱(1996), 『국문학개설』, 보성문화사.
- 김선정 외(2010), 『한국어 표현교육론』,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형설출판사.
- 김수중(2007), 『고전소설과 문학정신』, 태학사.
- _____(2013), 『한국의 서사문학과 민속』, 보고사.
- 김영만(2005), 『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역락.
- 김정숙(200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 「교육과정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론 1』, 한국문화사.
- 김정주(2009), 『詩歌文學研究』, 조선대학교 출판부.
- 김중섭(2006), 『한국어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 민현식(2005), 「한국어교육학 개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 『한국어교육론1』, 한국문화사.
- 민현식 외(2006), 『한국어교육론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 한국문화사.
- _____(2006), 『한국어교육론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 한국문화사.
- 박갑수(2013), 『한국어교육과 언어문화교육』, 역락.
- 박영순(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월인.
- _____(2006),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림출판사.
- _____(2007), 『다문화사회의 언어문화 교육론』, 한국문화사.
- 서대석 편(1997), 『구비문학』, 해냄.
-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201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외 1명, 『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1』, 아카넷.
- 신주철(2006),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커뮤니케이션북스.
- 염은열(2007), 『고전문학의 교육적 발견』, 역락.

- 윤여탁(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한국문화사.
- 이병규(2005),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 국립국어원.
- 이병기(1950), 『고전문학론』, 중앙문화협회.
- 이상원(2004), 『조선시대 시가사의 구도와 시각』, 보고사.
- _____(2013), 『가사육중』, 보고사.
- 이상익 외(1994), 『고전문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 이희승 편(2009),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임경순(2009), 『한국어 문화교육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임준철(2010), 『조선중기 漢詩 意象 연구』, 일지사.
- 임향란 외(201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구』, 소명.
- 정현선(2004), 『다매체 시대의 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역락.
- 정혜경·윤석임·강미옥(2007), 『한류의 수용과 한국어교육』, 박이정.
- 조현성 외(2010), 『2010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 한병철 저(2012), 김태환 역,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 한재영 외(2005),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 Bennett, Christine I.(2007), *Multicultural Education*, 김옥순 외 다수 역(2009), 다문화교육, 학지사.
- Brooks, N(1986). 'Culture in the classroom'. In Valdes, J. M.
- B개주, H. D.(2000), 「외국어 교수학습의 원리」, 이홍수 외 역(2005), Longman.
- Chris, Jenks(1993), Culture, 김윤용 역(1996), 『문화란 무엇인가』, 현대미학사.
- Clare Kramsch(1996), 「언어와 문화」, 장복명 외 역(2000), 박이정.
- Daemen, L.(1987), 「Culture Learning: The Fifth Dimension in Language Class-room」, Reading, MA: Addison-Wesley Co.
- H. D. B개주, 『외국어 교수학습의 원리』, 이홍수 외 역(2005).
- Hymes, D.(1996), 「Ethnography, Linguistics, Narrative Inequality」, Bristo, PA: Taylor and Francis.
- Patrick R. Moran, 정동빈 외 옮김(2004), 『문화교육』, 경문사.
- Jack C. Richards & Theodore S. Rodgers, 『외국어교육 접근 방법과 교수법』, CAMBRIDGE, 전병만·윤만근·오준일·김영태 역(2003).

- Nancy Bonvillian, 「문화와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엮음(2002), 서울: 한국문화사.
- Seelye, H. Ned(1984),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National Textbook Company.
- 崔雄權(2012), 『陶淵明與韓國古典山水田園文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韓國首爾大學語言教育院(2013), 『速成韓國語1-2』, 李春暉 譯,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 韓梅·韓曉 共著(2009), 『韓國文學選讀』, 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 金英今(2008), 『韓國文學作品選讀上·下』, 外國教學與研究出版社.
- 金英玉(2009), 『韓國現代文學和文學教育研究(朝文)』, 民族出版社.
- 全龍華(2011), 『韓國文學作品選讀』, 延邊大學出版社.
- 田景 等著(2010), 『韓國文化論』, 中山大學出版社.
- 王元濤(2013), 『我要帶你去韓國』, 清華大學出版社.

2. 논문

- 강보선(2013), 「다문화시대의 방언 교육 방향 연구」, 『새국어교육』 제9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 강사회(2006), 「한국어 기능 교수-학습의 새로운 동향」, 『국제학술발표논문집』 2006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강승혜(2003),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어교육』 14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강주영(2010),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콩쥐팥쥐’ 텍스트의 거시구조」, 『한국말글학』 제27집, 한국말글학회.
- 강현화(2008), 「한국어교육학 내용학의 발전 방향 모색」, 『한국어교육』 19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10), 「한국어 어휘학습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언어와 문화』 제6권 제2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_____ (2011),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화 교수요목」,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제1권 2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_____ (2011), 「한국문화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 세종학당학습자를 위한 원형적 교수요목 개발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제1권 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강혜민(2006), 「고전소설을 통한 한국어교육」, 전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희숙(2011),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 현황 및 대책-광주, 전남 지역 소재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22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고경숙·이소현(2010), 「교환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 개발의 실제-초급반 요구조사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제6권 1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곽병선·김희숙(2009),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방안 고찰」, 『지역발전연구』 제8권 제2호, 한국지역발전학회.
- 구선희(2008),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방안 연구-전래동화를 활용하여」, 『한국어교육』 제19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권태연(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 중국, 베트남, 몽골출신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몽경상연구』 제22권 제2호.
- 김경령(2010), 「한국어 교수 방법에 대한 고찰」, 『세계한국어문학』, 세계한국어문학회.
- 김대행(2012), 「한국 언어문화교육 연구의 내용학적 지평」,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_____ (2003), 「국어 교육과 한국어교육의 거리」, 『국어 교육』 제112호, 한국어교육학회.
- 김미진(2010),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한어문교육』 제24집.
- 김성미(2013),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을 위한 전래동화 활용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길·한진상(2010), 「다문화 가정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기초연구 ; 다문화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 『Andragogy Today』 제13권 제2호, 한국성인교육학회.
- 김성룡(2006), 「고전문학교육과 고전문학교육학」, 제15차 전국학술대회 『논문집』, 국어교과교육학회.
- 김수진(2010),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방법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현(2008),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 연구」, 『이화어문논집』 제26집, 월인.
- 김승환(2010), 「한국어교육의 개념과 갈래」, 『개신언문연구』 제31집, 개신어문학회.
- 김양희(2007),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문화 교수요목 설계 연구: 중국

- 인 한국어 학습자 초급 단계를 대상으로],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만(2001),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교육 방향」, 『외국어교육연구논집』 15,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 김영미(2007), 「한국어교육의 내용 영역과 지도 순서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오남(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 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제18집 3호, 한국가족학회.
- 김유미·박동호(2009),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과정 설계 연구-한국어학 전공생을 위한 내용 중심 접근 방법」, 『언어와 문화』 제5권 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김윤정(2006),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한국언어문화학』 제3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김윤주(2011),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 비교 연구-의사소통상황 및 문화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 김윤희(2010),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생활 중심 읽기 교재 개발 방안」, 『국어교과 교육연구』 17, 국어교과교육학회.
- 김은정(2012), 「전래동화를 활용한 읽기 교육 방안 연구: 성인 초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우(2009),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학 교재 개발 방향」, 『한국언어문화학』 제6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김정은(2007), 「문화 간 의사소통 관점에서의 한국어 교재 분석」, 『외국어교육』 14권 2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김재욱(2010), 「한국 내 대학 한국어교육학과의 교육과정 개발 연구」, 『언어와 문화』 제6권 제1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김정숙(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교육한글』 10, 한글학회.
- 김종철(2002), 「한국 고전문학과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 _____(2010),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화교육의 쟁점과 전망」, 『국어교육』 133권 0호, 한국어교육학회.

- 김주관(2007), 「언어를 통한 문화교육」, 『언어와 문화』 제3권 제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김중순(2009), 「문화 창조의 동력 한국어」, 『언어와 문화』 제5권 제1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김지호(201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시문학을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진(2013), 「탄뎀학습을 활용한 문화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제24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현양(2006), 「〈최척전〉, ‘희망’과 ‘연대’의 서사-‘불교적 요소’와 ‘인간애’의 의미 층위에 대한 주제적 해석」, 『열상고전연구』 제24집, 열상고전연구회.
- 김해옥(2004), 「문학 작품을 통한 한국 언어·문화교육방법」, 『비교문화연구』, 경희대학교비교문화연구소.
- 김희섭·최윤정(2009), 「중국인 대상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동북아문화연구』 제19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나정선(2008), 「외국인을 위한 문학교육 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명완(1998), 「한국어교육 자료의 체제 분석-단원 구성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15호, 이중언어학회.
- 라혜민(2007),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초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문금현(2009), 「한국어 어휘 교육의 현황과 과제」, 제11차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문보라(2009),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영자(2009),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오류를 막기 위한 한국어교육」, 『한국언어문화학』 제6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문혜진(2009), 「고전문학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방안 연구」, 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현식(1996), 「국제 한국어교육을 위한 국어 문화론의 내용 구성 연구」, 『한국말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08), 「한국어교육에서 소위 다문화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한국언어문화학』 제5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_____ (2010), 「미국의 한국어 학습자 의식 조사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7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박경래 외(2008), 「다문화 가정 대상 방언 한국어 교재 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 국립국어원·세명대 한국학센터.
- 박경우·여은호(2010), 「제한 중국유학생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소통 인식에 관한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제14호. 한국소통학회.
- 박노자(2000), 「한국문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어교육』 제11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선옥(2013), 「SIOP모델 기반 다문화 문학작품을 활용한 다문화 이해와 한국어교육」, 『인문과학연구』 38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박영순(1989), 「제2언어교육으로서의 문화교육-한국어의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6권, 이중언어학회.
- 박정진(2010),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 및 과제 ; 국립국어원 개발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제6권 제2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박지순·서계정(2009), 「쓰기 텍스트 분석을 통한 한국어 학습자의 통사적 숙달도 측정 연구」, 『언어와 문화』 제5권 제2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배도용(2009), 「『어휘 I』 교재 개발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 요구와 전략 분석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28집, 한중인문화회.
- 배순향(2012), 「고전텍스트를 활용한 언어-문화 통합교육 방안」, 한성대 석사학위논문.
- 배재원(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교육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3),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연구-한국문화의 상호관계성을 중심으로」, 『시학과 언어학』 제24집, 시학과 언어학회.
- 백인자(2004), 「한국어교육에서의 고전문학교육」, 『이화어문논집』 제22집, 이화여대.
- 변미영(2011), 「K-pop이 주도하는 신한류 ; 현황과 과제」, 『KOCCA 포커스』통권 제31호, 한국콘텐츠진흥원.
- 서희정(2005),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고전 서사문학 작품 선정 방안」, 『고향논집』 36집, 경희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여성가족부.
- 성기철(2001),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한국어교육』 제12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

- 회.
- _____ (2003), 「언어와 문화의 접촉-언어문화」, 『한국언어문화학』1-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_____ (2008),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교육의 과제」, 『한국언어문화학』 제5집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송용실(2012), 『한국어 문화교육의 실태와 교육 방향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윤경(2008),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영지(2011), 「한국어 문학교육의 실제: 유학생 전용 교과목으로서의 전망」, 『우리말 교육현장연구』 제5권 1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 _____ (2013),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을 위한 한국어문학교육의 가능성 모색」, 『반교어문연구』 35집, 반교어문학회.
- 심수명(2010), 「이주 결혼여성의 심리적 어려움 이해 및 지원방안 연구」, 『국제신학』 제12권,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 심혜령(2009),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기반어휘’ 연구 ; 고유 명사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제5권 제2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안경화·김정화·최은규(2000),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제11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안희은(2009), 「설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민정(2003),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 『국제지역연구』 7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_____ (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연구-한국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양영희(2013), 「한국어교육에서 문학텍스트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에 대한 시론-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위한 시론」, 『언어과학』 제20권 1호, 한국언어과학회.
- 양지선(2009),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선녀와 나무꾼을 이용한 표현교육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2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 엄태숙(2013), 「한국어교육 자료로서 시조 활용 텍스트 연구」, 서울교육대 석사논문.
- 오지혜(2007), 「한국어교육에서의 언어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의 범주 및 구조 설계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제4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_____ (2013), 「문화 능력의 재개념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내용 연구」, 『한국언어

- 문화학』 제10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왕문도(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연구」, 건양대 석사학위논문.
- 우창현(2007),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문제 ; 충북제천 지역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제3권 제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우한용(2004), 「문학의 생산을 위한 문학교육」, 『문학·선』 2004년 상반기호, 와우.
- 윤미정(2008),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여탁(1999),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 『국어 교육연구』 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_____ (1999), 「문학교육에 상상력의 역할-시의 표현과 이해 과정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권 0호, 한국문학교육학회.
- _____ (2003), 「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제14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06), 「한국어 문학 교수-학습 방법의 현황과 과제」, 『국어 교육연구』 8, 서울대학교 국어 교육연구소.
- _____ (2009), 「비교문학을 적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현대 문학교육 방법」, 『한국언어문화학』 제6집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이동희(2010), 「동양고전(경전)의 현대적 가치와 그 활용」, 『유학연구』 제21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 이명오(2006), 「여성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재의 활용도 제고 방안」, 『언어와 문화』 제2권 제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이미혜(2004),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통합교육-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의 통합 양상을 고려한 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1-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이미향(2010), 「학습자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재 고찰」, 『이중언어학』 제42호, 이중언어학회.
- 이상근·기영화(2005), 「지방공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장애 요인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HRD연구』 제1권 제2호, 한국평생교육·HRD 연구소.
- 이상희(2003),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 연구」, 『한국말글학』 제27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이선이(2007), 「문화인식과 문화교육-한국문화교육을 위한 제언」, 『언어와 문화』 3-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이선희(1999),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제10권 2호, 국제한

국어교육학회.

- 이송희(2013), 「외국인을 위한 시조문학교육의 인지론적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2권, 현대문학이론학회.
- 이수범·김동우(2009), 「중국 유학생의 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Speech & Communication』 Vol.11, 한국소통학회.
- 이숙진(2008), 「고전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옥(2007), 「이주 여성을 위한 생활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언어와 문화』 제3권 제2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이영희(2009), 「외교관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세계한국어문학』 제1집, 세계한국어문학회.
- 이은성(2010), 「농가월령가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분·강순원·김혜원(2008),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 ;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이정원(2013), 「<심청전>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한국고전연구』 제27권, 한국고전연구학회.
- 이지영(2008), 「한국어 교재 구성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5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이혜영(2001),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재 분석」, 『한국어교육』 제12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화선(2005), 「전래동화를 활용한 문화교육 연구」,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경순(2006), 「문화 중심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수 학습 방법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19권, 한중인문학회.
- 장경은(2001), 「한국어 교육을 위한 단계별 문화 내용과 교수 방법」, 전남대 석사논문.
- 장로기(2013), 「시를 매개로 한국문화교육의 활성화 방안」,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미영(2013), 「한국어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연동 방안」, 『국어문학』 54집, 국어문학회.
- 장원기(2010), 「고전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소현(2012),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흥부와 놀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수정(2004), 「학문 목적 읽기 교육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 분석 연구」, 『외국

- 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9,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전철웅·우혜경(2011), 「고전문학을 활용한 중학교 다문화교육」, 『개신어문연구』 제33집, 개신어문학회.
- 정태성(2012), 「요구분석을 통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호진·이소현(2010), 「이공계 유학생을 위한 과학기술문 쓰기 교육 방안」, 『언어와 문화』 제6권 제2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조문경(2011),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 조수진(2010), 「한국어 문화교육 내용 선정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7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조윤희(2011), 「호랑이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외국인 성인 초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정순(2013), 「한중 언어문화 교육내용 대조 연구」, 신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재형·유혜준·이유미(2013),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 『어문논집』 제53집, 중앙어문학회.
- 조태린(2007), 「언어로 본 한국문화」, 『인도네시아 지역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 조향록(1998),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제9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00),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한국어교육』 제11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04), 「한국 언어문화와 한국어교육」 제1권 2호,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조현성 외(2010), 『2010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 조현용(2006), 「한국어 비언어적 행위 표현과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제2차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주은정(2002),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현숙(2010),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과정 연구의 새로운 탐색-소위 ‘다문화교육’을 넘어」, 『한국언어문화학』 제7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진씨벽봉(2012), 「문학적 의사소통과 한국어교육으로서」의 한국고전소설교육-〈구운몽〉을 중심으로, 『선정어문』 제40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최권진(2009), 「한국어 교실에서 학습자 모국어 사용에 관한 의식 조사 연구」, 『언어와 문화』 제5권 제1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최정순(2004),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의 등가적 통합」, 『언어와 문화』 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_____(2013),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향-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까지 문화간 의사소통적 접근법을 제안하며」, 『한국고전연구』 2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 최주열·최권진(2009),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전통사상 교육 방안 연구」, 『언어와 문화』 제5권 제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최혜진(2010), 「가사문학의 향유 전통과 현대적 계승」, 『열상고전연구』 제32집, 열상고전연구회.
- 최홍원(2011), 「고전시가의 패러디를 통한 창의성 교육의 실제와 과제」, 『한어문교육』 제24집, 한국어문교육학회.
- 하채현·정수연(2010), 「한국소설과 한국영화 이해에 관한 사례 연구」, 『언어와 문화』 제6권 제1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한상택(2001), 「영어 교육에서의 문학 텍스트 활용 방안」,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 한 선(2011), 「문화간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문화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송화(2010),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과정 설계의 실제-대학 입학 전 한국어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21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한창훈(2006), 「고전문학교육의 가치와 위상」, 『국어교과교육연구』 제8호, 국어교과교육학회.
- 허왕욱(1999),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전문학교육의 방향」, 『한어문교육』 제7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 허 용(201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 『언어와 문화』 제6권 제1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허재영(2007), 「한국어교육의 현장성을 고려한 수행평가 원리 ; 단기 과정(ISP)의 초급반 영역 통합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26집. 호서대 인문학연구소.
- _____(2010),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글 교육의 의미」, 『교양교육연구』 제4권

- 제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 홍성희·김성숙(2009),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지원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3권 제1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 홍순희·김지영(2012), 「동아시아 신데렐라 유형 전래동화 번역을 활용한 비교 문화적 한국문화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1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홍정하·최재용·유석훈(2011), 「텍스트 수준과 가독성 ; 한국어 학습 교재를 이용한 검증과 응용」, 『언어정보』 제12호,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 홍혜준(2004), 「고전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1집, 국어교육학회.
- 황설운(2013),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항목 선정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10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황우철(2009), 「시조를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 중급이상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인교(1998), 「외국인을 위한 문학 교육」, 『이화어문논집』 제16집.
- _____ (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 문학교육의 가능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26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황인교·김성숙·박연경(2004), 「집중적인 한국어 교육과정의 문학 교육-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문학 수업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29권 0호,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황정민(2007),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문화 의사소통에 대한 민족지학적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자료

- 고려대학교 한국어 문화교육센터(2008), 『재미있는 한국어1』, 교보문고.
- _____ 한국어 문화교육센터(2009), 『재미있는 한국어2』, 교보문고.
- _____ 한국어 문화교육센터(2010), 『재미있는 한국어3~6』, 교보문고.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 『서강한국어1A~1B』, 서강대학교국제문화교육원.
 _____ 한국어교육원(2008), 『서강한국어2A~2B』, 서강대학교국제문화교육원.
 _____ 한국어교육원(2008), 『서강한국어3A~3B』, 서강대학교국제문화교육원.
 _____ 한국어교육원(2010), 『서강한국어4A~4B』, 서강대학교국제문화교육원.
 _____ 한국어교육원(2010), 『서강한국어5A~5B』, 서강대학교국제문화교육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0), 『한국어1』, 문진미디어.
 _____ 언어교육원(2000), 『한국어2』, 문진미디어.
 _____ 언어교육원(2005), 『한국어3』, 문진미디어.
 _____ 언어교육원(2006), 『한국어4~5』, 문진미디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7), 『한국어1』, 연세대학교출판부.
 _____ 한국어학당(2007), 『한국어2』, 연세대학교출판부.
 _____ 한국어학당(2008), 『한국어3~4』, 연세대학교출판부.
 _____ 한국어학당(2009), 『한국어5~6』, 연세대학교출판부.
 _____ 한국어학당(2007), 『한국어 읽기1』, 연세대학교출판부.
 _____ 한국어학당(2010), 『한국어 읽기2~5』, 연세대학교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1), 『이화한국어1-1~1-2』, 이화여자대학교.
 _____ 언어교육원(2011), 『이화한국어2-1~2-2』, 이화여자대학교.
 _____ 언어교육원(2011), 『이화한국어3-1~3-2』, 이화여자대학교.
 _____ 언어교육원(2012), 『이화한국어4~6』, 이화여자대학교.

4. 기타

e-나라지표(<http://index.go.kr>)
 국악포털 아리랑(<http://arirangs.com>)
 한국전통소리문화(<http://www.koreamusic.org>)
 국악방송(<http://www.gugakfm.co.kr>)

부 록

한국어교육에 대한 평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어교육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어교육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한국어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한국어 습득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한국어 교재의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는 한국어교육 경험,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인식 및 인적사항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에는 약 7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오직 한국어교육 발전을 위한 평가 자료로만 사용되오니, 다소 힘드시더라도 성의껏 솔직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길 바랍니다.

2012년 1월

* 해당 칸에 'v'표를 해 주십시오 *

※ 인적사항

- 1) 성별? 남 여
- 2) 연령?
 20세 이하 20-25세 25-30세 30세 이상
- 3) 이주 유형? 유학 어학연수
- 4) 거주 지역? 대구 경북 충남 전남

※ 한국어 경험

- 5) 한국어 학습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 6) 한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 중 하 모름
- 7) 한국어교육과 교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한국인의 삶의 모습과 세계관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에 대한 전통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 문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어 표현력 다양성을 추구하 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일상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한국어교육과 교재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 방안을 위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